

보험동향 2016년 가을호

Ⅰ 총괄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Ⅰ 경제금융 동향	세계경제	이아름 (연구원)
	국내경제	정인영 (연구원)
	국내금융	이해랑 (연구원)
Ⅰ 국내보험 동향	보험총괄	조용운 (연구위원)
	생명보험	최 원 (선임연구원)
		이해랑 (연구원)
	손해보험	김경환 (수석연구원)
		정인영 (연구원)
Ⅰ 해외보험 동향	미 국	이해랑 (연구원)
	영 국	이아름 (연구원)
	일 본	이소양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1
2. 국내경제 / 19
3. 국내금융 / 36

II. 국내보험 동향

1. 보험 총괄 / 44
2. 생명보험 / 50
3. 손해보험 / 66

III. 해외보험 동향

1. 미국 / 90
2. 영국 / 96
3. 일본 / 102
4. 중국 / 113

부록. 통계표 / 123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6년 2/4분기 미국(1.4%)과 중국(1.8%)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미국 0.6%p, 중국 0.6%p)하였으나 유로지역(1.2%)과 일본(0.7%)은 하락(유로 지역 0.9%p, 일본 1.4%p)함.
- 2016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중국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99.6을 기록함.
 - 미국, 일본, 유로지역은 하락한 반면, 중국은 상승함.
- 2016년 2/4분기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1/4분기보다 0.3%p 상승한 0.3%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높아진 3.0%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전분기대비 하강 국면을 보였으며, 경기 선행지수를 볼 때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기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2/4분기 미국과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유로지역과 일본은 하락함.
 -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로 2016년 1/4분기보다 0.6%p 상승한 1.4%(연율) 성장함.
 - 유로지역은 전분기대비 0.9%p 하락한 1.2%(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표 5〉 참조).
 - 일본은 민간소비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1.4%p 하락한 0.7%(연율) 성장에 그침(〈표 13〉 참조).
 - 중국은 수출입 감소폭 둔화로 전분기대비 0.6%p 상승한 1.8%를 기록함(〈표 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¹⁾	3.4	3.2	n.a.	n.a.	n.a.	n.a.	n.a.	n.a.	n.a.
선진국 ¹⁾	1.9	2.1	n.a.	2.3		1.6		1.5	
신흥국 ¹⁾	4.6	4.0	n.a.	4.3		4.2		4.3	
미국 ²⁾	2.4	2.6	2.3	2.0	2.6	2.0	0.9	0.8	1.4
유로지역 ³⁾	1.1	2.0	1.7	3.3	1.4	1.5	1.8	2.1	1.2
일본 ⁴⁾	0.0	0.5	2.2	5.0	-1.9	2.1	-1.7	2.1	0.7
중국 ⁵⁾	7.3	6.8	1.7	1.6	1.8	1.8	1.5	1.2	1.8

주: 1) 국가별 분기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 유로 지역: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6, 10).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9).

3) Eurostat(2016, 10).

4) 일본 내각부(2016, 9).

5) 중국 국가통계국(2016, 7).

■ 2016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¹⁾는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99.6을 기록함.

○ 미국은 주택투자 부진 등으로 전분기보다 0.1 하락한 99.1을 나타냄(〈표 5〉 참조).

○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0.2 하락한 100.3을 기록함.

○ 일본은 일본 경제성장세 둔화 지속 전망으로 전분기보다 0.1 하락한 99.6으로 집계됨.

○ 중국은 중국 경제 회복 가능성으로 전분기보다 0.3 상승한 98.9를 나타냄.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²⁾	100.2	99.7	100.1	100.0	99.9	99.6	99.4	99.4	99.6
선진국 ³⁾	100.5	100.2	100.5	100.5	100.3	100.1	99.9	99.8	99.7
미국	100.8	100.1	100.8	100.6	100.3	99.9	99.4	99.2	99.1
유로	100.3	100.5	100.2	100.4	100.5	100.5	100.6	100.5	100.3
일본	100.5	100.2	100.1	100.2	100.4	100.2	99.9	99.7	99.6
중국	100.4	99.2	99.9	99.6	99.4	99.0	98.7	98.6	98.9

주: 1)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6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1/4분기보다 0.3%p 상승한 0.3%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0.7%를 나타내었지만,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p 상승한 -0.3%를 나타냄.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3)}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2.8	1.5	3.3	2.9	1.7	1.1	0.5	0.0	0.3
선진국	2.7	2.7	3.4	3.7	3.3	2.4	1.7	1.3	0.7
신흥국	2.9	-0.1	3.2	1.7	-0.4	-0.7	-1.1	-1.6	-0.3

주: 1)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3)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6년 2/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높아진 3.0%를 기록하였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도 높아짐.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보다 상승한 1.0%를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는 전분기와 동일한 4.8%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46.3%, 35.6% 상승하였고, CRB 상품지수²⁾도 10.6% 높아짐.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5			2016			2015			2016	
	연간	3/4	4/4	1/4	2/4		연간	3/4	4/4	1/4	2/4
세계	3.2	2.7	2.6	2.8	3.0	두바이 현물지수	50.1	48.4	38.7	31.1	45.5
선진국	1.4	0.6	0.6	0.8	1.0	WTI 현물지수	49.3	47.1	41.8	35.2	47.8
신흥국	4.7	4.7	4.6	4.8	4.8	CRB 상품지수 ²⁾	208.1	201.8	186.9	165.9	183.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6, 10); 한국은행; Bloomberg.

2)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 2016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1/4분기보다 0.6%p 상승한 1.4%를 기록함.
- ☐ 2/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높아지고 소비자신뢰지수는 낮아짐.
- ☐ 2/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낮아진 반면, 주택가격지수는 높아짐.
- ☐ 2/4분기 산업생산증가율,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설비가동률은 소폭 하락함.
- ☐ 2016년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수는 감소함.

〈경제성장〉

- 2016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1/4분기보다 0.6%p 상승한 1.4%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2.7%p 상승한 4.3%를 기록함.
 - 민간투자 증가율의 경우 주택투자 둔화 등으로 -7.9%를 나타내며 전분기보다 하락폭이 커짐.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5%p 상승한 1.8%를 나타내었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8%p 상승한 0.2%를 기록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3.3%p 하락한 -1.7%를 기록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2.4	2.6	2.3	2.0	2.6	2.0	0.9	0.8	1.4
민간소비	2.9	3.2	4.6	2.4	2.9	2.7	2.3	1.6	4.3
재화	3.9	4.0	5.1	2.7	4.3	4.2	2.1	1.2	7.1
서비스	2.3	2.8	4.3	2.3	2.2	2.0	2.3	1.9	3.0
민간투자	4.5	5.0	2.6	9.9	1.0	2.0	-2.3	-3.3	-7.9
설비	6.0	2.1	-1.1	1.3	1.6	3.9	-3.3	-3.4	1.0
주택	3.5	11.7	11.4	13.3	14.9	12.6	11.5	7.8	-7.7
수출	4.3	0.1	4.5	-5.8	2.9	-2.8	-2.7	-0.7	1.8
수입	4.4	4.6	11.2	5.6	2.9	1.1	0.7	-0.6	0.2
정부지출	-0.9	1.8	-0.4	2.6	3.2	1.9	1.0	1.6	-1.7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함.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9),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소비부문〉

■ 2016년 2/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소비자신뢰지수는 낮아짐.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6%p 높아진 1.5%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1.2 낮아진 94.8을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낮아진 반면, 주택가격지수는 높아짐.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8%p 하락한 0.7%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2.7% 상승한 188.3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4.1	2.3	0.6	-0.7	1.5	0.9	0.3	-0.1	1.5	0.1	-0.3
소비자신뢰지수 ²⁾	86.9	98.0	92.7	101.4	96.2	98.3	96.0	96.0	94.8	96.7	101.8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³⁾ (%)	7.8	10.7	3.3	-6.7	17.2	0.0	-1.8	1.5	0.7	1.4	-5.8
주택가격지수 ⁴⁾	170.7	179.3	172.9	173.7	178.8	182.2	182.5	183.2	188.3	190.9	n.a.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6년 2/4분기 산업생산증가율,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³⁾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설비가동률은 소폭 하락함.
 -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0.1%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75.3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의 경우 전분기보다 상승한 51.8을 나타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며 123.6을 기록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2.9	0.3	0.9	-0.5	-0.7	0.4	-0.8	-0.4	-0.1	0.6	-0.5
설비가동률 ²⁾	77.6	77.5	78.6	77.7	76.6	76.6	75.8	75.4	75.3	75.9	75.5
ISM제조업PMI	55.6	51.3	56.6	53.2	52.6	51.0	48.6	49.8	51.8	52.6	49.4
경기선행지수 ³⁾	117.2	122.2	119.9	120.6	122.2	122.7	123.4	123.0	123.6	124.3	124.1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 및 물가⁴⁾〉

- 2016년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수는 감소함.
 - 비농업 취업자는 43만 9,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4만 8,000명 감소하였으며,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6만 7,000명으로 전분기보다 2,000명 감소함.
 -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4.9%를 기록함.

3)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4) 물가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전년동기와 비교함.

■ 2016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낮아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0%를 나타내었고,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9%를 나타내었고,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5%임.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¹⁾ (%)	6.2	5.3	5.7	5.6	5.4	5.2	5.0	4.9	4.9	4.9	4.9
포괄적 실업률(u-6) ²⁾ (%)	12.0	10.5	11.4	11.1	10.7	10.2	9.9	9.8	9.7	9.7	9.7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301.5	274.4	82.3	57.0	75.2	57.6	84.6	58.7	43.9	25.2	16.7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30.8	27.8	29.0	28.8	27.8	27.3	27.2	26.9	26.7	26.0	26.3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6	0.1	1.3	-0.1	0.0	0.1	0.5	1.1	1.0	0.8	1.1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8	1.8	1.7	1.7	1.8	1.8	2.0	2.2	2.2	2.2	2.3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9	-3.3	0.8	-3.2	-3.3	-3.3	-3.3	-1.8	-1.9	-2.2	-2.1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9	2.0	2.0	1.9	2.1	2.2	1.8	1.6	1.5	1.0	1.2

주: 1)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나. 중국경제

- 2016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4분기보다 높아진 1.8%를 기록하였고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7%를 나타냄.
- 2016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2016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1/4분기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구매자관리지수는 소폭 높아짐.
- 2016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경제성장〉

- 2016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4분기보다 높아진 1.8%를 기록함.
 -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 증가율보다 0.8%p 하락한 9.7%를 기록함.
 - 수출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보다 4.9%p 상승한 -3.6%를 나타냄.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보다 6.9%p 상승한 -6.6%를 나타냄.

〈표 9〉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질 GDP ¹⁾	7.3	6.8	1.7 (7.2)	1.6 (7.0)	1.8 (7.0)	1.8 (6.9)	1.5 (6.8)	1.2 (6.7)	1.8 (6.7)	n.a.	n.a.
고정자산투자 ²⁾	16.8	11.4	15.8	13.7	11.6	10.8	10.1	10.5	9.7	8.1	8.1
수출 증가율 ³⁾	5.5	-1.1	8.7	9.9	-2.8	-6.3	-5.2	-8.5	-3.6	-4.4	-2.8
수입 증가율 ³⁾	0.9	-14.2	-1.6	-17.6	-13.3	-14.1	-11.6	-13.5	-6.6	-12.5	1.5

주: 1) 전분기대비,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소비부문〉

■ 2016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0.2%를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101.2를 기록함.

〈표 10〉 중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7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2.0	10.6	11.7	10.2	10.2	10.7	11.1	10.5	10.2	10.2	10.6
소비자신뢰지수	104.4	105.9	104.9	107.5	107.7	104.7	103.9	102.8	101.2	n.a.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6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1/4분기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구매자관리지수는 소폭 높아짐.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7%p 하락한 6.1%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50.1을 나타냄.

〈표 11〉 중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8.2	6.0	7.6	5.6	6.3	5.9	5.9	6.8	6.1	6.0	6.3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²⁾	50.7	49.9	50.4	49.9	50.2	49.8	49.7	49.5	50.1	49.9	50.4

주: 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의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 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⁵⁾ 및 물가〉

■ 2016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와 동일한 2.1%를 기록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 1.9%p 상승한 -2.9%를 기록함.

〈표 12〉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1.4	1.5	1.2	1.4	1.7	1.5	2.1	2.1	1.8	1.3
생산자물가 상승률(%)	-1.9	-5.2	-2.7	-4.6	-4.7	-5.7	-5.9	-4.8	-2.9	-1.7	-0.8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5)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 고에서는 생략함.

다. 일본경제

- 2016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0.2%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와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낮아짐.
- 2016년 2/4분기 실업률은 1/4분기와 동일하였고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분기대비 하락함.

〈경제성장〉

- 2016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0.2%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윤년효과로 높아진 1/4분기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분기대비 0.5%p 낮아진 0.2%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0.1%를 나타냄.
 - 반면, 주택투자 증가율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전분기대비 5.1%p 상승한 5.0%를 기록함.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8%p 하락한 0.1%를 나타내었고, 공공투자는 FY16 예산 조기 시행 등으로 전분기대비 2.4%p 높아진 2.6%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의 경우 엔화 강세, 구마모토 지진(4월)에 따른 자동차생산 등 일부 공장의 조업중단,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부진 등으로⁶⁾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1.5%를 나타냄.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하락한 0.0%를 나타냄.

6) 국제금융센터(2016. 8. 15), “일본 금년 2분기 연율 0.2% 성장”, Issue Briefing.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0.0	0.5	0.6 (2.2)	1.2 (5.0)	-0.5 (-1.9)	0.5 (2.1)	-0.4 (-1.7)	0.5 (2.1)	0.2 (0.7)
민간소비	-0.9	-1.2	0.6	0.1	-0.6	0.4	-0.8	0.7	0.2
설비투자	3.1	1.5	-0.1	3.1	-1.0	0.8	1.2	-0.6	-0.1
주택투자	-5.3	-2.5	0.1	2.6	1.7	1.1	-0.5	-0.1	5.0
공공투자	0.4	-2.5	1.1	-1.4	0.9	-1.8	-3.2	0.2	2.6
수출	8.3	2.8	3.3	1.7	-4.2	2.6	-0.9	0.1	-1.5
수입	7.2	0.3	1.2	1.1	-1.8	1.2	-1.1	-0.5	0.0
정부지출	0.1	1.2	0.4	0.2	0.4	0.2	0.8	0.9	0.1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6. 9).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2/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2%p 상승한 0.2%를 나타냄.
- 소매판매 증가율은 1/4분기보다 2.4%p 상승한 0.1%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41.2로 집계됨.
- 2016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0.6%p 낮아진 4.9%를 기록하였고,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대비 9.2% 감소함.

〈표 14〉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2.1	-1.2	0.8	1.1	-1.3	-1.0	0.0	-1.0	0.2	-0.4	1.5
소매판매 증가율 ²⁾ (%)	1.7	-0.4	1.0	-1.6	0.1	1.1	-0.2	-2.3	0.1	1.5	-1.1
소비자신뢰지수 ³⁾	39.3	41.3	38.9	40.6	41.5	41.0	42.2	41.4	41.2	41.3	42.0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9.0	1.9	-13.8	-5.4	7.6	6.2	-0.7	5.5	4.9	8.9	2.5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4.0	4.1	1.3	4.1	3.0	-6.5	2.6	6.7	-9.2	4.9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6년 2/4분기 실업률은 1/4분기와 동일하였고, 유효구인배율⁷⁾은 소폭 상승함.
 - 실업률은 1/4분기와 동일한 3.2%를 기록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1.36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높아짐.
- 2016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0.4%를 나타냄.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5%임.

〈표 15〉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3.6	3.4	3.5	3.5	3.4	3.4	3.3	3.2	3.2	3.0	3.1
유효구인배율 ¹⁾ (배)	1.09	1.20	1.12	1.15	1.18	1.22	1.25	1.29	1.36	1.37	1.37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2.7	0.8	2.6	2.3	0.5	0.1	0.3	0.0	-0.4	-0.4	-0.5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1.9	1.0	2.1	2.1	0.5	0.8	0.8	0.6	0.5	0.3	0.2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7)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라. 유로지역⁸⁾경제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1/4분기보다 0.2%p 하락한 0.3%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산업생산 증가는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실업률은 북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로지역 국가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북유럽은 상승하였지만, 주요국과 남유럽은 하락함.

〈경제성장〉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스페인과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1/4분기보다 0.2%p 하락한 0.3%를 기록함(〈표 16〉과 〈표 19〉 참조).
 - 경제성장률의 경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전분기보다 각각 0.3%p, 0.8%p, 0.3%p 하락한 반면, 영국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하였고 스페인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주요국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보다 0.4%p 낮아진 0.2%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0.0%를 나타내었고 정부지출 증가율도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0.1%를 기록함.
 - 유로지역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1%p 상승한 1.1%를 기록하였으며,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0.4%를 나타냄.

8)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표 16〉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1.1	2.0	0.4 (1.7)	0.8 (3.3)	0.4 (1.4)	0.4 (1.5)	0.4 (1.8)	0.5 (2.1)	0.3 (1.2)
민간소비	0.8	1.8	0.5	0.4	0.4	0.5	0.3	0.6	0.2
고정자본투자	1.5	3.1	0.5	1.6	0.1	0.5	1.4	0.4	0.0
수출	4.4	6.3	1.5	2.5	1.2	0.4	0.7	0.0	1.1
수입	4.8	6.3	1.4	2.4	0.7	1.2	1.4	-0.1	0.4
정부지출	0.6	1.4	0.1	0.5	0.4	0.4	0.6	0.6	0.1

주: 1)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6. 10).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4.3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낮아진 0.2%를 나타냄.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 -7.8로 마이너스 지수가 지속됨.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의 경우 1/4분기보다 1.1%p 하락한 -0.3%를 나타냄.

〈표 17〉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¹⁾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유로지역 ESI ²⁾	101.5	104.2	100.7	102.5	103.7	104.5	106.2	104.0	104.3	104.5	103.5
소매판매 증가율 ³⁾ (%)	1.4	2.7	1.0	1.0	0.7	0.6	0.2	0.7	0.2	0.3	0.0
소비자신뢰지수 ⁴⁾	-10.2	-6.2	-11.3	-6.2	-5.2	-7.0	-6.4	-8.3	-7.8	-7.9	-8.5
산업생산 증가율 ⁵⁾ (%)	0.9	2.0	0.6	1.4	0.1	0.4	0.1	0.8	-0.3	-1.1	n.a.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 + 서비스업(30%) + 소비자 신뢰(20%) + 건설업(5%) + 소매거래(5%)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 및 물가〉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실업률의 경우 북유럽을 제외한 모든 유로지역 국가는 전분기 대비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6.4%를 기록하였고, 북유럽은 전분기와 동일한 6.7%이었음.
 -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7.1%를 나타내었고,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6.6%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됨.
- 2016년 2/4분기 유럽 국가⁹⁾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북유럽은 상승하였지만, 주요국과 남유럽은 하락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낮아진 0.1%를 나타내었고, 북유럽의 경우는 전분기보다 0.1%p 높아진 1.2%를 나타냄.
 - 또한, 동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0.7%를 나타내었고, 남유럽의 경우도 0.1%p 하락한 -0.2%를 나타냄.

〈표 18〉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5년 4/4	6.6	6.8	7.8	17.3	0.2	0.8	-0.5	0.1
2016년 1/4	6.5	6.7	7.4	17.0	0.2	1.1	-0.7	-0.1
2016년 2/4	6.4	6.7	7.1	16.6	0.1	1.2	-0.7	-0.2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6. 6).

9)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표 19〉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독일 GDP	1.6	1.7	0.8	0.2	0.5	0.2	0.4	0.7	0.4
민간소비	0.9	2.0	0.8	0.4	0.4	0.6	0.4	0.3	0.2
고정자본투자	3.4	1.7	1.1	0.5	0.1	0.1	1.7	1.7	-1.5
수출	4.1	5.2	2.0	1.0	1.6	0.0	-0.7	1.6	1.2
수입	4.0	5.5	2.7	1.4	0.4	1.1	0.6	1.3	-0.1
프랑스 GDP	0.6	1.3	0.2	0.6	0.0	0.4	0.4	0.7	-0.1
민간소비	0.7	1.5	0.4	0.5	0.1	0.5	0.0	1.1	0.0
고정자본투자	-0.3	1.0	-0.1	0.5	-0.3	0.7	1.2	1.3	-0.2
수출	3.3	6.1	2.8	1.7	1.7	-0.2	0.6	-0.4	0.2
수입	4.7	6.6	1.7	2.2	0.3	1.7	2.2	0.2	-1.8
이탈리아 GDP	0.1	0.7	-0.1	0.3	0.2	0.2	0.2	0.3	0.0
민간소비	0.4	1.5	0.4	0.2	0.7	0.6	0.3	0.4	0.1
고정자본투자	-3.0	1.3	-0.1	1.0	0.0	0.6	0.9	0.7	0.2
수출	2.9	4.3	1.7	1.4	1.2	-1.3	1.7	-1.3	2.4
수입	3.3	6.0	0.3	3.4	1.3	-0.1	1.4	-0.7	1.4
스페인 GDP	1.4	3.2	0.7	0.9	1.0	0.8	0.8	0.8	0.8
민간소비	1.6	2.9	0.8	0.8	0.8	1.1	0.7	1.0	0.7
고정자본투자	3.8	6.0	1.4	1.6	2.3	1.3	1.1	0.3	1.3
수출	4.2	4.9	0.2	1.0	1.4	1.8	0.9	-0.4	4.3
수입	6.5	5.6	-0.2	2.6	1.5	3.1	0.3	0.4	2.7
영국 GDP	3.1	2.2	0.8	0.3	0.5	0.3	0.7	0.4	0.7
민간소비	2.2	2.5	-0.2	0.8	0.7	0.9	0.4	0.7	0.9
고정자본투자	6.7	3.4	0.7	1.7	0.9	0.9	-1.3	-0.1	1.6
수출	1.5	4.5	4.0	2.2	-1.1	-0.3	4.3	0.1	-1.0
수입	2.5	5.4	2.8	3.4	-1.7	0.5	2.6	0.2	1.3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6, 10).

2. 국내경제

- 2016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0%p 증가한 3.2%를 기록함.
 - 건설투자(10.8%)가 성장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소비(3.3%)를 비롯한 일부 내수지표의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설비투자(-2.7%)의 부진이 지속됨.
- 2016년 2/4분기 경제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내수는 소매판매가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였고, 설비투자는 기계수주 부진이 이어지며 2.7% 감소한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중심으로 10.8% 증가함.
 - 산업생산은 수출회복 지연 및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광공업(1.0%) 생산 부진이 이어졌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감.
 - 총취업자 수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전년동기대비 1.1% 증가에 그쳤고,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7%p 상승한 60.8%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3.8%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9%를 기록하며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99.7을 기록하며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해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냄.
 - 대외거래는 수출이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교역 둔화 및 저유가,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가운데, 수입이 저유가가 지속되며 10.3% 감소한 결과 무역수지는 26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업소득 증가율이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0.8% 상승에 그침.
- 2016년 2/4분기 경기동향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전분기와 동일한 100.4, 100.2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경기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가. 경제성장

- 2016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제외한 전반적인 개선 동력은 미약한 상황으로 전년동기대비 1.0%p 증가한 3.2%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¹⁰⁾를 앞둔 가수요 및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3% 증가함(〈표 21〉 참조).
 - 설비투자 역시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운송장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큰 기계류 감소세가 지속되며 2.7% 감소함(〈표 22〉 참조).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 중심으로 10.8% 증가함(〈표 22〉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2.9% 증가함.¹¹⁾
 - 수출은 반도체, 석유 및 화학제품 중심으로 1.9% 증가하였고, 수입은 원유, 자동차를 중심으로 3.3% 증가함.¹²⁾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3.4 (0.7)	2.7 (0.3)	3.3	2.4 (0.8)	2.2 (0.4)	2.8 (1.2)	3.1 (0.7)	2.6	2.8 (0.5)	3.2 (0.8)
민간소비	1.4	1.1	1.7	1.5	1.7	2.2	3.3	2.2	2.2	3.3
설비투자	4.4	4.4	6.0	5.8	5.1	6.7	3.9	5.3	-4.5	-2.7
건설투자	2.3	-1.7	1.1	0.9	1.0	5.6	7.5	3.9	9.6	10.8
지식생산물투자	5.8	1.7	5.4	2.0	0.9	1.1	2.1	1.5	0.9	2.9
수출	1.3	0.7	2.0	0.5	-0.4	0.5	2.5	0.8	0.7	1.9
수입	1.7	-0.4	1.5	2.1	1.6	3.1	6.1	3.2	1.9	3.3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0)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2016년 6월 말 종료됨.

11)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9. 2), “2016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12)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9. 2), “2016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6년 2/4분기 소매판매는 정책효과 등으로 인해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가계의 심리위축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¹³⁾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4%, 6.0% 증가함.
- 내구재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앞둔 가수요로 인해 승용차 판매를 중심으로 크게 늘며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함.
- 7월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해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며 전년동월대비 0.7% 증가에 그쳤으며, 8월에는 폭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가전·휴대폰 중심으로 6.6% 증가함.¹⁴⁾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7.4%, 2.2% 증가함.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폭염에 따른 음식료품 판매 중심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5.5%, 7.0% 증가함.

〈표 21〉 소비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소매판매	2.2	3.4	3.6	6.1	3.9	4.6	6.2	4.4	6.0
내구재	7.9	8.9	7.7	16.1	10.2	5.6	11.1	0.7	6.6
* 승용차	17.6	18.8	17.5	29.8	21.3	8.9	17.0	-11.6	-5.8
준내구재	-2.2	-1.3	-3.4	1.5	-1.2	2.7	4.6	7.4	2.2
비내구재	0.8	2.4	4.0	3.0	2.5	4.9	4.2	5.5	7.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3) 〈표 25〉 소비자심리지수 참조. 한국은행(2016.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1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8. 31), '16.7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9. 30), '16.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2016년 2/4분기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과 경기불확실성에 따라 투자심리가 미약한 상황으로 국내 기계수주 부진과 낮은 제조업 평균가동률¹⁵⁾이 이를 뒷받침하며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함.¹⁶⁾

○ 2016년 2/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 부문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기계류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에 그침.

- 7월 설비투자지수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12.3% 하락함.¹⁷⁾

- 8월 설비투자지수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부문에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함.¹⁸⁾

○ 2016년 2/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¹⁹⁾는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함.

- 7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운수업 등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전기·영상·음향 통신 등 민간부문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함.²⁰⁾

- 8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장비 등 민간부문에서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3% 감소함.²¹⁾

15) 제조업 평균가동률(통계청): ('16.4) 71.3, ('16.5) 73.1, ('16.6) 72.2, ('16.7⁹⁾) 73.8, ('16.8⁹⁾) 70.4

16) 국회예산정책처(2016. 8), "NABO 경제동향&이슈".

17) 통계청 보도자료(2016. 8. 31), "2016년 7월 산업활동동향".

18) 통계청 보도자료(2016. 9. 30), "2016년 8월 산업활동동향".

19)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20) 통계청 보도자료(2016. 8. 31), "201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1) 통계청 보도자료(2016. 9. 30), "2016년 8월 산업활동동향".

〈표 22〉 투자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설비투자	5.8	5.1	6.7	3.9	5.3	-4.5	-2.7		
설비투자지수	9.2	4.5	10.2	1.6	7.8	-7.1	0.8	-12.3	3.6
기계류	11.5	3.9	5.3	-7.8	1.9	-12.7	-7.5	-11.1	8.2
운송장비	3.1	6.5	22.2	26.5	24.6	9.4	21.0	-14.9	-7.0
국내기계수주 ³⁾	-3.0	14.9	-27.1	6.9	1.6	0.9	-2.9	0.4	-3.3
건설투자	0.9	1.0	5.6	7.5	3.9	9.6	10.8		
건설기성(불변)	-1.7	-3.8	6.2	8.0	6.3	14.8	19.2	19.8	23.6
건축	-0.2	-3.5	10.8	16.3	22.7	22.1	26.5	21.9	29.6
토목	-4.3	-4.3	-1.9	-4.5	-14.6	2.0	6.4	15.5	11.9
국내건설수주(경상)	57.4	49.1	50.4	40.1	40.9	13.8	-6.3	45.7	54.6
건축	89.5	49.3	42.5	37.8	61.0	13.1	2.5	35.3	30.9
토목	1.7	48.3	83.6	45.9	3.2	16.0	-32.8	93.9	200.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2/4분기 건설투자는 저금리 기조하에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청약 수요 확대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수주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건물건설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함.²²⁾

○ 건설기성²³⁾은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9.2% 증가함.

- 7월과 8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각각 19.8%, 23.6%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토목 부문에서 큰 폭으로 줄어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함.

- 7월과 8월 국내건설수주는 주택, 사무실·점포 등 건축 부문과 도로·교량, 기계설치 등 토목부문에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각각 45.7%, 54.6% 증가함.²⁴⁾

22) 국회예산정책처(2016. 7), “NABO 경제동향&이슈”.

23)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24) 통계청 보도자료(2016. 8. 31), “2016년 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16. 9. 30), “2016년 8월 산업활동동향”.

〈산업생산〉

■ 2016년 2/4분기 산업생산은 광공업이 수출 부진 속에 자동차 파업 및 조선 및 철강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회복이 제한적인 반면, 서비스업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기저효과에 따라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함.

○ 2016년 2/4분기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철강·조선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 ICT 부문이 상승 전환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함.

- 7월 광공업 생산은 ICT 생산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자동차를 비롯한 전반적인 제조업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1.6% 증가에 그침.

- 8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높은 2.3%를 기록하였으나 조업일수 증가(2일) 및 기저효과 감안 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자동차업계 파업²⁵⁾ 영향이 본격화됨.²⁶⁾

○ 2016년 2/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함.

- 7월 서비스업 생산은 개별소비세 완화 정책 종료 및 지난해 메르스 사태 기저효과와 소멸 등에 주로 기인하며 전년동월대비 3.0% 증가에 그침.²⁷⁾

- 8월 서비스업 생산은 건설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금융 및 보험업(7.7%)과 부동산 및 임대업(6.5%)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함.²⁸⁾

25) 8월 중 현대·기아·GM 등 자동차 3사 파업으로 약 6.6만 대 생산차질 발생(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 9. 30), '16.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6) 한국개발연구원(2016. 10), KDI 경제동향.

27) 한국개발연구원(2016. 9), KDI 경제동향.

28) 한국개발연구원(2016. 10), KDI 경제동향.

〈표 23〉 산업 생산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전산업생산 ³⁾	1.0	1.0	2.1	2.4	1.7	2.3	3.6	3.4	5.0
광공업	-1.1	-1.3	-0.1	-0.1	-0.6	-0.2	1.0	1.6	2.3
제조업	-1.2	-1.3	-0.3	0.1	-0.6	-0.4	1.1	1.7	2.3
자동차	-4.1	2.6	4.7	1.4	1.0	-0.2	-3.4	-6.0	-12.1
ICT	-1.5	-2.2	2.4	6.6	1.3	-0.2	6.8	19.5	8.0
서비스업	2.7	2.7	2.9	3.3	2.8	2.8	3.7	3.0	4.7
도매 및 소매업	0.4	0.9	1.4	4.2	1.7	2.8	4.2	3.3	4.9
운수업	3.9	-0.3	0.7	1.1	1.4	2.1	4.2	7.9	3.7
숙박 및 음식점업	-0.7	-2.8	-3.5	-1.3	-2.0	-0.8	1.9	3.0	1.3
금융 및 보험업	8.7	11.4	10.1	6.2	9.0	6.5	4.3	2.1	7.7
부동산 및 임대업	5.4	10.2	11.1	5.9	8.1	3.3	-0.5	2.0	6.5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및 물가〉

■ 2016년 2/4분기 총취업자 수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력수요가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1.1% 증가에 그쳤으며²⁹⁾, 고용률은 60.8%, 실업률은 3.8%를 기록함.

○ 2/4분기 총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1.1%, 1.5% 증가율을 보임.

-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인구감소세 확대³⁰⁾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증가³¹⁾로 3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2%, 1.4% 증가함.

29) 한국은행(2016.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0) 청년 인구 증감(전년동월비, 만 명): ('16. 4) -4.7, ('16. 5) -5.0, ('16. 6) -5.8, ('16. 7) -6.4, ('16. 8) -6.8(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9. 13), "2016년 8월 고용동향").

31) 청년경제활동참가율(%): ('15. 4) 45.8, ('15. 5) 46.0, ('15. 6) 46.1, ('15. 7) 46.8, ('15. 8) 45.7 ('16. 4) 46.9, ('16. 5) 47.3, ('16. 6) 48.0, ('16. 7) 48.1, ('16. 8) 47.4

-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7%p 상승한 60.8%를 기록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61.2%, 61.0%를 나타냄.
-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3.8%를 기록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3.5%, 3.6%를 나타냄.
 - 청년실업률의 경우 전분기대비 1.0%p 하락한 10.3%를 기록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9.2%, 9.3%를 나타냄.

■ 2016년 2/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및 정책효과³²⁾ 등으로 고용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부진이 더욱 심화됨.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고령화 등 비경기적 요인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기대비 5.7% 감소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7.3%, 4.5% 감소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³³⁾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여파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에 그쳤으며, 7월과 8월에는 조선업 구조조정³⁴⁾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각 전년동월대비 1.3%, 1.6%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서비스업 생산 개선 흐름이 지속되며 각각 전년동월대비 2.3%, 2.6% 증가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1.5% 감소하였으며, 7월과 8월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0.1%, 3.9% 증가함.
 -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의 경우 0.7%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1.4%, 2.4% 증가함.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취업자 수의 경우 0.2%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1.4%, 0.3% 증가함.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3.4%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3.6%, 3.3% 증가함.

32)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2016년 6월 말 종료), 임시공휴일(2016. 5. 6) 지정 등(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6. 15), “2016년 5월 고용동향”).

33) 제조업 포함.

34)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 증감(동월비, 만 명): (경남)+2.9, (울산)+0.8, (전남)+0.1, (부산)+1.0(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9. 13), “2016년 8월 고용동향”).

〈표 24〉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 ¹⁾	1.4	1.2	1.2	1.5	1.3	1.1	1.1	1.1	1.5
청년취업자 ¹⁾	0.8	2.3	1.3	2.6	1.8	1.0	2.1	2.2	1.4
고용률 ²⁾	59.0	60.7	60.9	60.5	60.3	59.1	60.8	61.2	61.0
실업률 ³⁾	4.1	3.8	3.4	3.1	3.6	4.3	3.8	3.5	3.6
청년 ⁴⁾ 실업률 ³⁾	10.3	9.9	8.4	8.0	9.2	11.3	10.3	9.2	9.3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7.4	-7.7	-6.8	-7.6	-7.4	-4.9	-5.7	-7.3	-4.5
광공업	3.1	3.3	3.8	4.2	3.6	3.0	1.0	-1.3	-1.6
제조업	3.2	3.4	3.8	4.0	3.6	2.9	0.8	-1.4	-1.6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1.6	1.5	1.3	1.5	1.4	1.1	1.7	2.3	2.6
건설업	4.3	2.4	0.6	-1.0	1.5	-0.5	-1.5	0.1	3.9
도·소매, 음식, 숙박	2.5	2.2	0.8	-0.6	1.2	-0.9	0.7	1.4	2.4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9	-0.1	1.7	2.3	0.7	1.5	0.2	1.4	0.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3	1.3	1.6	3.1	1.8	2.5	3.4	3.6	3.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6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의 하방압력으로 인해³⁵⁾ 전년동기대비 0.9% 상승하였으며, 7월과 8월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0.7%, 0.4% 상승하며 낮은 상승세를 이어감.

○ 2016년 2/4분기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출하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석유류 하락세가 이어지며 0.9% 하락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0.7%, 1.5% 하락함.

- 7월 중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공업제품 하락세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0.7% 하락함.³⁶⁾

35) 한국은행(2016.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8. 2), “201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 8월 중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확대된 가운데 전기요금 한시 인하 효과가 주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년동월대비 1.5% 하락함.³⁷⁾

○ 2016년 2/4분기 서비스물가는 2.2% 상승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9%씩 상승함.

- 7월, 8월 중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상승세가 지자체 교통요금 인상효과 소멸에 따라 큰 폭으로 둔화되며 각각 1.9% 상승에 그침.³⁸⁾

■ 2016년 2/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99.7을 나타내며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였으며, 7월에는 101.0, 8월에는 102.0을 기록하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미약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표 25〉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¹⁾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심리지수 ²⁾	102.0	102.3	101.3	104.0	102.4	99.3	99.7	101.0	102.0
소비자물가 상승률	0.6	0.5	0.7	1.1	0.7	1.0	0.9	0.7	0.4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0.7	-0.8	-0.9	-0.4	2.0	-0.6	-0.9	-0.7	-1.5
농축수산물	0.3	2.1	2.9	2.6	-0.2	4.5	2.0	0.2	1.0
공업제품	-0.4	-0.3	-0.2	0.0	-7.4	-0.6	-0.6	-0.5	-0.5
전기·수도·가스	-3.7	-8.0	-10.8	-7.1	1.8	-8.0	-7.0	-3.9	-12.6
서비스	1.6	1.6	2.0	2.2	2.5	2.4	2.2	1.9	1.9
집세	2.3	2.4	2.7	2.8	1.2	2.9	2.6	2.5	2.5
공공서비스	0.5	0.5	1.8	2.0	1.9	2.2	2.2	1.0	1.0
개인서비스	1.8	1.9	1.8	2.2	0.0	2.3	2.1	2.1	2.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3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9. 1), “201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3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8. 2), “201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대외거래〉

- 2016년 2/4분기 수출은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교역 둔화 및 저유가,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1,26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10.3% 감소한 99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는 26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냄.
- 수출의 경우, 식료 및 직접소비재 수출이 5.4% 상승하였으나, 원료 및 연료(-20.4%), 경공업 제품(-0.8%), 중화학 공업품(-6.1%) 등이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임.
 - 7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³⁹⁾ 선박 인도물량 감소 등 일시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함.⁴⁰⁾
 - 8월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⁴¹⁾ 수출물량 증가, 단가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함.⁴²⁾
- 수입의 경우, 소비재가 3.4% 상승 전환하였고, 원자재는 원유, 가스, 석유제품, 철강 등의 단가 하락⁴³⁾으로 18.9% 감소하며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고, 자본재 수입도 3.2% 감소함.
 - 7월 수입은 원자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함.
 - 8월 수입은 원자재 감소폭이 축소된 가운데 소비재와 자본재가 상승 전환하며 전년 동월대비 0.7% 상승하며 2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함.⁴⁴⁾

39) 전년동월대비 1.5일 줄어듦.

4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8. 1), “2016년 7월 수출입 동향”.

41) 전년동월대비 2일 늘어남.

42) 조업일수 2일 증가, 수출물량(반도체, 컴퓨터, 선박, 석유화학, 섬유 등) 증가, 단가 회복(반도체, 평판DP,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9. 1), “2016년 8월 수출입 동향”.

43) 〈표 4〉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7. 1), “201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44) 조업일수 2일 증가, 수출물량(반도체, 컴퓨터, 선박, 석유화학, 섬유 등) 증가, 단가 회복(반도체, 평판DP,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9. 1), “2016년 8월 수출입 동향”.

〈표 26〉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3.5	0.5	-4.4	-1.3	-2.1	5.0	5.4	2.5	22.3
	원료 및 연료	-36.0	-28.2	-33.2	-36.0	-33.3	-31.3	-20.4	-13.2	-23.9
	경공업 제품	-5.3	-9.5	-10.0	-8.6	-8.4	-5.5	-0.8	1.8	11.3
	중화학 공업품	1.7	-4.6	-6.4	-9.8	-4.9	-13.0	-6.1	-11.3	4.3
	전체	-3.0	-7.3	-9.5	-12.0	-8.0	-13.6	-6.7	-10.4	2.6
	금액	1,334	1,351	1,282	1,300	5,268	1,152	1,260	410	401
수입	소비재	8.1	2.2	-1.8	0.5	2.1	-2.6	3.4	-8.6	7.8
	원자재	-29.5	-26.5	-32.7	-29.8	-29.6	-25.4	-18.9	-18.4	-5.2
	자본재	7.0	-0.9	3.7	-4.0	1.3	-7.6	-3.2	-8.5	5.9
	전체	-15.6	-15.6	-18.7	-17.8	-16.9	-16.1	-10.3	-13.6	0.7
	금액	1,118	1,105	1,080	1,063	4,365	937	991	334	350
무역수지		216.3	246.1	202.8	237.4	902.6	214.5	269.3	75.6	51.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6년 2/4분기 지역별 수출의 경우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대다수 지역으로부터 줄어듦.

-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對중국 수출의 경우 내수중심 정책기조 변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2.7% 감소하였고, 對중동 수출은 중동지역의 저유가 지속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22.0% 감소하였으며, 對EU 수출은 선주 인도연기 요청 등으로 10.1% 감소함.⁴⁵⁾
 - 7월 수출은 對중국 수출과 對EU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가운데 對미국 수출의 경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 감소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그 외 주요지역으로 부터의 수출도 감소세가 지속됨.⁴⁶⁾
 - 8월 수출은 對중국·미국·중동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가운데 對일본·ASEAN 수출이 증가로 전환됨.

4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7. 1), “201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4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8. 1), “2016년 7월 수출입 동향”.

○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0.4% 감소하였으며, 대다수 주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세가 지속됨.

- 7월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로 전환되었고, 그 외 주요지역으로부터 수입은 모두 감소세를 이어감.
- 8월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동남아지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상승 전환함.

〈표 27〉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중국	26.0	-2.7	-6.9	-10.5	-5.6	-15.7	-12.7	-9.3	-5.3
	ASEAN	14.2	-10.1	-7.1	-10.4	-11.5	-11.2	-1.2	-4.1	2.5
	미국	13.3	-1.0	-2.2	-10.0	-0.6	-3.3	-4.3	-14.4	-4.7
	EU	9.1	-8.5	-3.6	7.9	-6.9	6.6	-10.1	-4.8	-4.8
	중남미	5.8	-12.7	-23.9	-30.9	-14.6	-28.7	-17.1	-16.6	-16.1
	중동	5.8	-6.8	-17.2	-21.9	-12.6	-20.3	-22.0	-18.9	-7.5
	일본	4.9	-13.1	-26.6	-20.0	-20.5	-13.2	-14.0	-2.3	7.2
	전체	100.0	-7.3	-9.5	-12.0	-8.0	-13.6	-6.7	-6.7	-10.4
수입	중국	20.7	-4.1	2.5	-3.8	0.2	-9.5	-3.0	-8.1	3.0
	중동	15.7	-37.3	-46.0	-45.0	-42.5	-42.1	-30.4	-23.6	-11.8
	동남아	14.5	-13.9	-12.2	-10.4	-10.8	-8.4	-2.6	-8.2	9.6
	EU	13.1	-5.2	-11.0	-9.4	-8.3	-11.7	-10.5	-18.0	-0.4
	일본	10.5	-13.2	-18.0	-18.8	-14.7	-11.2	-3.8	0.7	20.2
	미국	10.1	-2.6	0.2	-1.4	-2.8	-4.8	-1.6	-15.8	-4.9
	호주	3.8	-22.5	-15.2	-20.4	-19.5	-16.2	-17.9	-22.2	-4.0
	전체	100.0	-15.6	-18.7	-17.8	-16.9	-16.1	-10.3	-10.3	-13.6

주: 1) 2015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가계소득〉

■ 2016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월세 비중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소득 증가율이 감소하며,⁴⁷⁾ 전년동기대비 0.8% 상승에 그쳤으며, 가

47) 근로소득증가율(동기비, %): ('15.1/4)3.8, (2/4)1.7, (3/4)0.1, (4/4)0.9, ('16.1/4)0.3, (2/4)1.9
 월세가구 비중(%): ('15.1/4)43.1, (2/4)43.7, (3/4)45.6, (4/4)44.6, ('16.1/4)46.6, (2/4)45.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8. 19), '16년 2/4분기 가계동향 분석).

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유가하락에 따른 지출부담 완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변동 없음.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6만 원으로 0.8% 증가하였고, 실질소득은 변동 없음.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9.4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변동 없고, 실질소비지출은 0.9% 감소함.

- 곡물·유가하락으로 식료품비 및 주거·수도·광열비 등이 감소한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오락·문화, 교통 등은 지출이 증가함.⁴⁸⁾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51.9만 원으로 1.0%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102.5만 원으로 3.6%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심리가 둔화되어 소비지출이 정체된 가운데 처분가능소득은 상승하며 0.7%p 하락한 70.9%를 나타냈으며,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0.7%p 상승한 29.1%를 나타냄.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¹⁾

(단위: %, %p, 만 원)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51.7	427.1	441.6	430.2	437.3	455.5	430.6
	증가율	2.6	2.9	0.7	0.9	1.6	0.8	0.8
	실질증가율 ²⁾	2.0	2.3	0.0	-0.2	0.9	-0.2	0.0
처분가능 소득	금액	366.8	348.4	358.2	352.8	356.3	370.4	351.9
	증가율	3.0	3.1	0.9	0.7	1.9	1.0	1.0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65.3	249.4	256.3	255.0	256.3	266.9	249.4
	증가율	0.0	0.7	-0.5	1.7	0.5	0.6	0.0
	실질증가율 ²⁾	-0.6	0.1	-1.2	0.7	-0.2	-0.4	-0.9
흑자액	금액	101.5	98.9	102.0	97.8	100.0	103.5	102.5
	증가율	11.6	9.6	4.7	-1.9	5.6	1.9	3.6
평균소비성향 ³⁾		72.3	71.6	71.5	72.3	71.9	72.1	70.9
흑자율 ⁴⁾		27.7	28.4	28.5	27.7	28.1	27.9	29.1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4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8. 19), '16년 2/4분기 가계동향 분석.

다. 경기동향

■ 2016년 2/4분기 경기동향⁴⁹⁾을 살펴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⁵⁰⁾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⁵¹⁾가 각각 전분기와 동일한 100.4, 100.2를 기록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과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 전환하였으나 재고순환 지표와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하며 전분기와 동일한 100.4를 기록함.

- 7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구인구직비율 등이 상승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 수출입물가비율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0.1 상승한 100.4를 기록함.

-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가 상승 전환한 가운데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월대비 0.3 상승한 100.7을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소매액판매지수와 수입액이 상승 전환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분기대비 0.1 상승한 100.3을 기록함.

- 7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가 상승하며 전월대비 0.4 상승한 100.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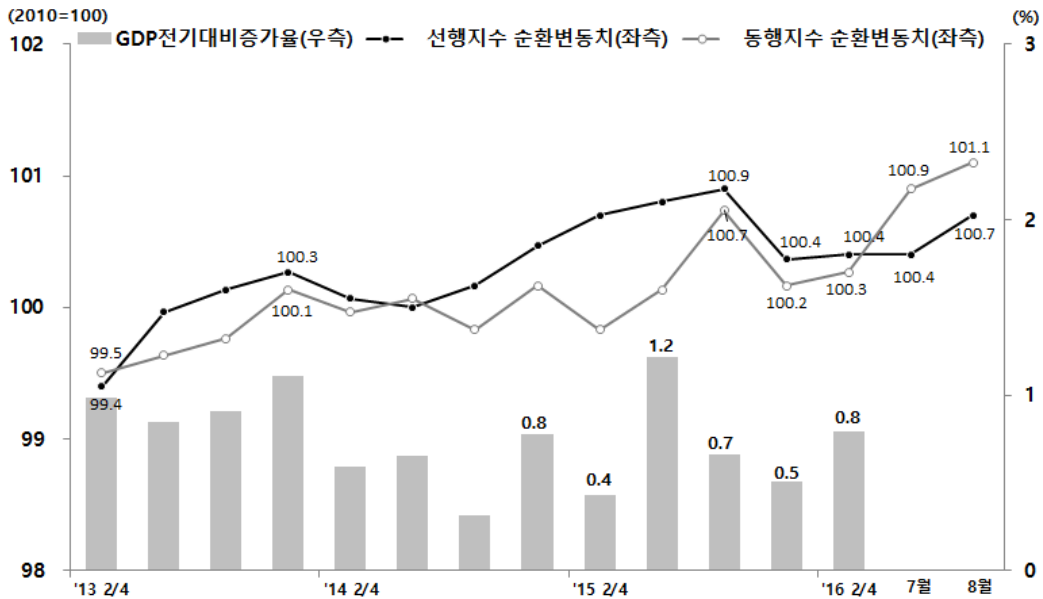
-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가 하락하였으나 소매액판매지수가 상승 전환하고 건설기성액과 수입액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2 상승한 101.1을 기록함.

49) 통계청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설명력 향상을 위해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함(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이에 따라 향후 계간보험동향 경기종합지수는 이를 기초해 작성함.

50)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51)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업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6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2/4분기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분기대비 1.7 상승한 반면 재고지수는 1.6 하락하여 재고율⁵²⁾은 4.2%p 하락한 122.8%를 기록함.⁵³⁾

○ 7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0.8%p 하락한 120.5%를 나타냄.

- 7월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 석유정제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자동차,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석유정제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함.⁵⁴⁾

○ 8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120.6%를 나타냄.

- 8월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1.8%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석유정제, 1차금속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이 줄어 1.7% 감소함.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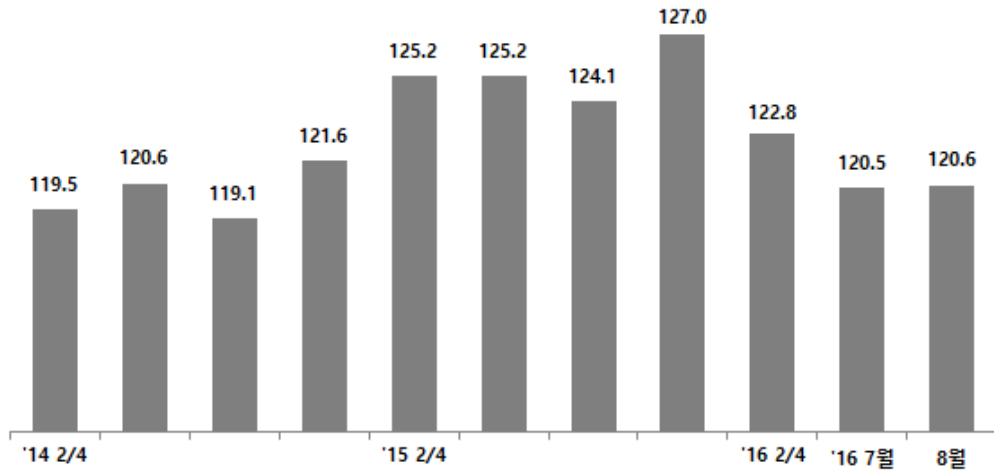
52)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53) 2016년 4월 ~ 2016년 8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54) 통계청 보도자료(2016. 8. 31), “2016년 7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¹⁾

(%)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55) 통계청 보도자료(2016. 9. 30), “2016년 8월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6년 3/4분기 국고채(3년 만기)와 회사채(3년 만기, AA-) 평균 금리는 각각 1.26%, 1.67%로 2016년 2/4분기(국고채 1.42%, 회사채 1.88%)보다 하락하여 저금리 기조가 심화됨.
- 2016년 3/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21.4원으로 전분기(1,163.2원)대비 하락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042.56으로 전분기(1,979.91)대비 상승함.
- 2016년 3/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7,962.42로 전분기(18,941.43)대비 하락하였으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과 주가자산비율은 각각 12.10, 0.91로 역시 전분기(주가이익률 12.95, 주가자산비율 0.98)대비 하락함.

〈금리〉

- 2016년 3/4분기 정책금리는 1.25%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표 29〉 참고).
 - 2016년 9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 경제의 경우 미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중국의 완만한 성장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미약한 개선 움직임을 고려함.
 -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경제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국내 경제의 경우 내수의 개선 움직임, 실업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2016년 3/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대비 19bp 하락한 1.35%임(〈표 29〉 참고).
 - 7월 평균 CD(91일) 금리는 1.36%, 8월과 9월은 각각 1.35%, 1.34%로 매월 소폭 하락하고 있음.
- 2016년 3/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전분기대비 16bp 하락한 1.26%임(〈표 29〉 참고).
 - 7월 국고채 금리는 브렉시트 결정의 영향에 따른 주요 국채금리 하락, 미 연준의 금리

- 인상 지연 가능성 등으로 6월 평균 금리 1.33%보다 12bp 하락한 1.22%를 기록함.
- 8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와 미국채(10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7월 평균 금리보다 2bp 상승한 1.24%를 나타냄.
 - 9월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경제지표 호조⁵⁶⁾에 따라 전월대비 7bp 상승한 1.31%임.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구분	2015 3/4	2015 4/4	2016 1/4	2016 2/4	2016 3/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50	1.50	1.50	1.25	1.25	-	-1.50
CD(91일)	1.63	1.61	1.65	1.54	1.35	-0.19	-1.80
국고채(3년)	1.72	1.70	1.53	1.42	1.26	-0.16	-1.86
회사채(3년, AA-)	1.98	2.07	2.01	1.88	1.67	-0.21	-2.28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26	0.37	0.47	0.46	0.41	-0.05	-0.42

주: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6년 3/4분기 평균 1.67%로 전분기대비 21bp 하락함 (〈표 29〉 참고).
- 7월, 8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1.65%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9월은 1.70%로 전월대비 5bp 상승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5bp 줄어든 평균 41bp임.

〈환율〉

- 2016년 3/4분기 동안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41.8원 하락한 평균 1,121.4원을 기록함(〈표 30〉 참고).
- 7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사드배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위안화 절상⁵⁷⁾에 따른 아시아 통화 동반 강세 등의 영향으로 6월 평균 원/달러 환율 1,170.5원보다 하락한 1,144.1원을 기록함.

56) 미국 9월 ISM 제조업지수는 51.5로 예상치인 50.4를 상회하였고, 우리나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예상치보다 0.8% 상회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함.

57) 2016년 7월 25일 기준으로 전월에 비하여 달러대비 0.29% 절상함.

- 8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2분기 GDP 부진,⁵⁸⁾ 영란은행 통화완화정책,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⁵⁹⁾ 등의 영향으로 7월보다 32.4원 하락한 1,111.7원이었음.
- 9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국내 지진 등의 영향이 있었으나 미국 경제지표 부진,⁶⁰⁾ 미연준의 정책 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 평균 환율보다 소폭 하락한 1,107.5원을 기록함.

〈표 30〉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원/달러	1,167.8	1,157.7	1,201.4	1,163.2	1,121.4	1,144.1	1,111.7	1,107.5
엔/달러	122.2	121.5	115.3	108.2	102.4	104.1	101.3	101.8
달러/유로	1.112	1.095	1.103	1.129	1.116	1.106	1.121	1.121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6년 3/4분기 달러화는 엔화대비 약세, 유로화대비 강세를 보여 엔/달러, 달러/유로 평균 환율이 모두 하락함(〈표 30〉 참고).

- 7월 엔/달러 환율은 위안화 절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며 전월대비 하락한 104.1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브렉시트 불확실성 진정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여 1.106달러를 기록함.
- 8월에는 미국 2분기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과 영란은행의 통화 완화정책의 영향으로 엔/달러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한 101.3엔,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상승한 1.121달러를 나타냄.
- 9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101.8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1.12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58) 미국 2분기 GDP는 1.2%로 시장예상치인 2.6%를 하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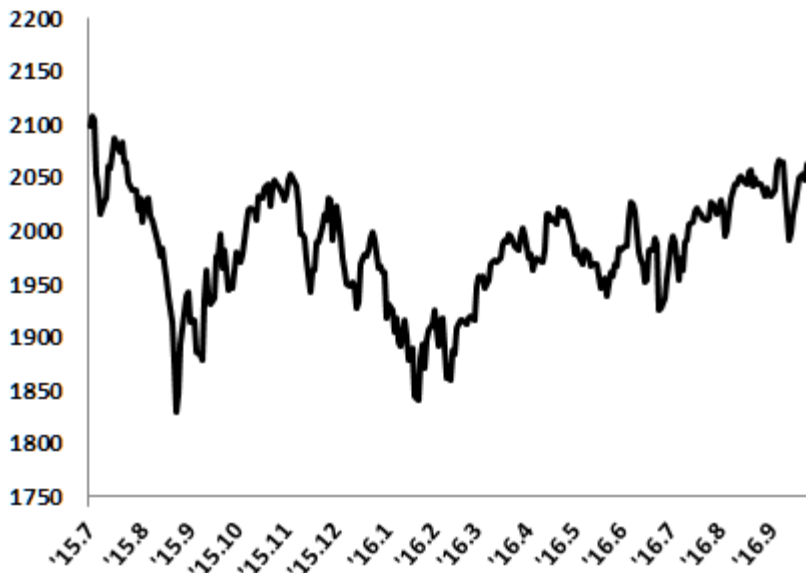
59) S&P는 8월 8일 우리나라가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함.

60) 미국 2분기 생산성확정치가 연율기준으로 전기대비 0.6% 하락하였으며, 연속 3분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주가〉

- 2016년 3/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1,979.91보다 상승한 평균 2,042.56임(〈그림 3〉 참고).
- 7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브렉시트 우려 완화, 미국 다우지수 상승⁶¹⁾ 등의 영향으로 6월 평균주가지수 1,977.03보다 상승한 2,002.48을 나타냄.
- 8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036.66으로 외국인 순매수 지속,⁶²⁾ S&P의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미국 증시 상승⁶³⁾ 등의 영향으로 7월에 비해 상승하였음.
- 9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042.56으로 외국인 매수세 지속,⁶⁴⁾ 미국 정책금리 동결, 일본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정책 결정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함.

〈그림 3〉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61) 2016년 7월 13일 18,372.12로 최고치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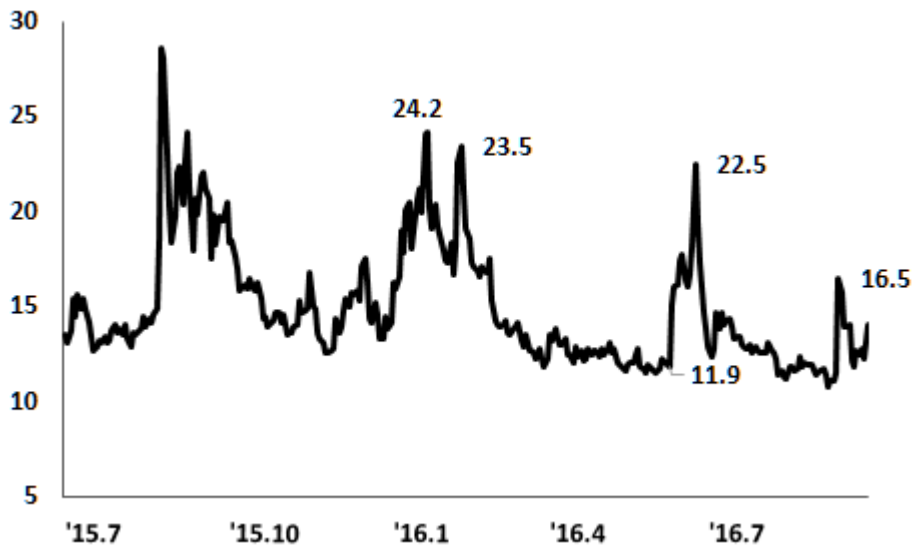
62) 8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7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보임.

63) 2016년 8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다우지수 18,635.05, S&P500지수 2,190.15, 나스닥지수 5,262.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64) 9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8개월 연속 순매수세임.

- 2016년 3/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를 살펴보면, 6월 브렉시트 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지난 9월 12일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불안감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4〉 참고).

〈그림 4〉 변동성지수(V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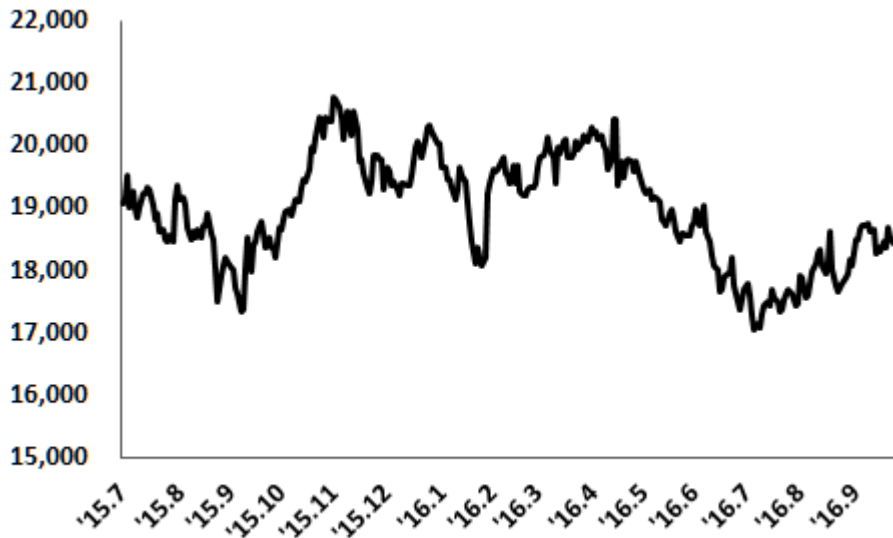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주가〉

- 2016년 3/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7,962.42로 전분기 평균 18,941.43보다 하락함(〈그림 5〉 참고).

〈그림 5〉 KOSPI 보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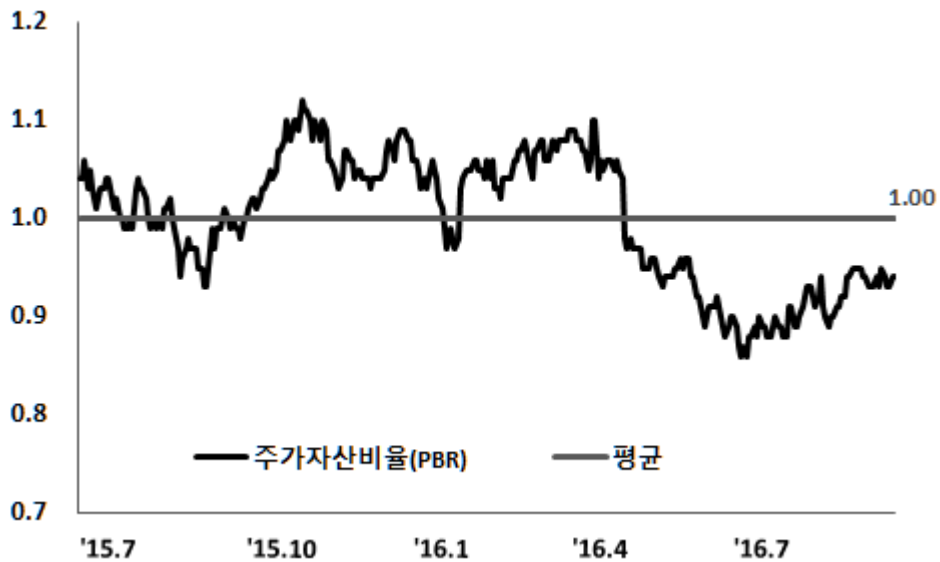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3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4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 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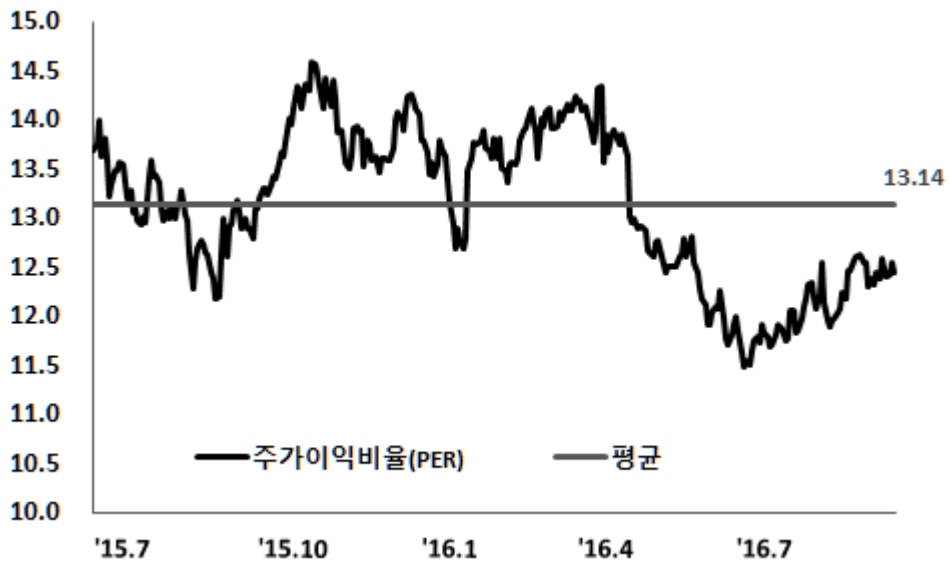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BR)과 주가자산비율(PER)은 각각 12.10과 0.91로 2/4분기 평균인 12.95와 0.98에 비하여 하락함(〈그림 6〉 참고).
- 7월 평균 보험주가이익률과 주가자산비율은 각각 11.76, 0.88로 6월 평균 보험주가이익률(12.22)과 주가자산비율(0.92)에 비하여 하락함.
 - 8월 평균 보험주가이익률과 주가자산비율은 각각 12.10과 0.91로 7월대비 상승함.
 - 9월 평균 보험주가이익률과 주가자산비율은 각각 12.49, 0.94로 전월대비 상승함.

〈그림 6〉 보험 주가이익률(PBR)



주: 직선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7〉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Ⅱ. 국내보험 동향

- 2016년 2/4분기 전체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48조 8,435억 원을 기록함.
 - 저금리 지속에 대응하기 위한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전략이 계속된 반면, 저축성보험의 경우 신규판매 부진이 이어짐.
- 2016년 2/4분기 말 전속설계사 수는 생명보험이 전분기대비 1,900명 감소한 11만 4,998명, 손해보험이 전분기대비 605명 감소한 8만 2,719명을 나타냄.
 - 교차설계사 수는 생명보험이 전분기대비 293명 감소한 1만 15명, 손해보험이 전분기대비 1,031명 감소한 7만 5,299명임.
-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59.7%, 손해보험 손해율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81.3%를 기록하며 다소 개선됨.
-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2.9% 증가한 1,002조 695억 원을 기록함.
 - 보험산업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2.2% 증가한 896조 3,917억 원,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8.3% 증가한 105조 6,778억 원임.
- 보험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생명보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17.1% 감소한 1조 7,783억 원임(재보험회사 및 보증보험회사 제외).
 - 생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6.1% 감소한 9,700억 원, 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8.9% 상승한 8,083억 원임.
- 보험산업 전체 연간 기준 환산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76%p 하락한 8.14%를 나타냈으며,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6%p 하락한 0.93%를 나타냄.
 - 생명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2.54%p 하락한 6.77%,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5%p 하락한 0.75%를 나타냄.
 - 손해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6%p 상승한 11.82%,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0%p 상승한 1.48%를 나타냄.

1. 보험 총괄

가. 수입(원수)보험료

■ 2016년 2/4분기 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48조 8,435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성장세는 생명보험 증가세 둔화로 전년동기(5.7%)대비 하락하였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¹⁾는 연금보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에 그친 28조 3,283억 원을 나타냄(〈표 7〉 참조).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²⁾는 퇴직연금 판매 회복과 자동차보험 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8% 늘어난 20조 5,152억 원을 기록함(〈표 19〉 참조).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1),2)}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27.9 (5.1)	27.2 (6.3)	34.9 (6.4)	117.2 (6.0)	29.0 (6.1)	28.3 (1.7)
손해보험	19.2 (6.6)	18.9 (5.5)	22.8 (2.2)	80.2 (4.8)	19.8 (2.4)	20.5 (6.8)
합계	47.1 (5.7)	46.0 (6.0)	57.7 (4.7)	197.5 (5.5)	48.8 (4.5)	48.8 (3.8)

주: 1)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보험회사가 회계연도 동안 받아들인 보험료로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으로 구성됨.

2)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s written)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포함함.

나. 지급률(손해율) 및 사업비율

■ 2016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59.7%이고, 사업비율은 0.3%p 하락한 13.4%이며, 해지율은 0.1%p 하락한 4.5%임.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81.3%를 기록하였으며, 사업비율은 0.3%p 상승한 19.2%를 나타냄에 따라 합산비율은 0.6%p 하락한 100.5%임.

〈표 2〉 지급률 · 손해율 및 사업비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생명 보험 ¹⁾	지급률	59.0	55.3	53.5	57.1	58.5	59.7
	사업비율	13.7	14.3	11.7	13.3	13.3	13.4
	해지율	4.6	6.6	8.6	8.6	2.3	4.5
손해 보험 ²⁾	손해율	82.3	83.7	82.9	83.1	81.6	81.3
	사업비율	18.9	19.1	20.6	19.5	19.4	19.2
	합산비율	101.1	102.8	103.4	102.7	101.0	100.5

주: 1)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금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보유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출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 · 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 2016년 2/4분기 말 설계사 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감소함.

-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1,900명 감소한 11만 4,998명을 나타냈으며, 교차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293명 감소한 1만 15명임.
-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605명 감소한 8만 2,719명을 나타냈으며, 교차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1,031명 감소한 7만 5,299명임.

〈표 3〉 보험산업 설계사 수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생명 보험	전속설계사	120,933	120,203	117,311	116,898	114,998
	교차설계사	8,863	9,239	9,906	10,308	10,015
손해 보험	전속설계사	80,400	80,269	81,148	83,324	82,719
	교차설계사	75,454	75,501	75,448	76,330	75,299

자료: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 2016년 2/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9% 증가한 1,002조 695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은 전분기대비 2.6% 증가한 760조 9,583억 원, 손해보험은 전분기대비 3.8% 증가한 241조 1,112억 원임.
- 2016년 2/4분기 말 보험산업 총부채 규모는 전분기대비 2.2% 증가한 896조 3,917억 원을 나타냈으며, 총자본 규모는 전분기대비 8.3% 증가한 105조 6,778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산업 총부채와 총자본 규모는 각각 전분기대비 2.1%, 7.1% 증가함.
 - 손해보험산업 총부채와 총자본 규모는 각각 전분기대비 2.8%, 11.0% 증가함.

〈표 4〉 보험산업 재무상태표^{1),2)}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총자산	691.0 (0.8)	707.1 (2.3)	724.9 (2.5)	724.9 (9.5)	742.0 (2.4)	761.0 (2.6)
	총부채	629.8 (1.3)	643.2 (2.1)	660.9 (2.8)	660.9 (9.6)	675.0 (2.1)	689.2 (2.1)
	총자본	61.2 (-4.2)	63.9 (4.5)	64.0 (0.1)	64.0 (8.2)	67.0 (4.7)	71.8 (7.1)
손해보험	총자산	212.3 (2.1)	219.6 (3.5)	225.9 (2.9)	225.9 (12.8)	232.2 (2.8)	241.1 (3.8)
	총부채	184.2 (2.7)	190.3 (3.4)	196.6 (3.3)	196.6 (13.4)	201.6 (2.5)	207.2 (2.8)
	총자본	28.1 (-1.5)	29.3 (4.1)	29.3 (0.0)	29.3 (9.0)	30.5 (4.2)	33.9 (11.0)
합계	총자산	903.3 (1.1)	926.7 (2.6)	950.8 (2.6)	950.8 (10.3)	974.2 (2.5)	1,002.1 (2.9)
	총부채	814.0 (1.6)	833.5 (2.4)	857.5 (2.9)	857.5 (10.5)	876.7 (2.2)	896.4 (2.2)
	총자본	89.3 (-3.4)	93.2 (4.4)	93.3 (0.1)	93.3 (8.5)	97.5 (4.5)	105.7 (8.3)

주: 1)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생명보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17.1% 감소한 1조 7,783억 원임.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36.1% 감소한 9,700억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28.9% 상승한 8,083억 원을 기록함.

〈표 5〉 보험산업 당기순이익^{1),2)}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²⁾	1.5 (43.9)	0.9 (-18.2)	-0.1 (-160.7)	3.6 (11.0)	1.3 (3.6)	1.0 (-36.1)
	보험영업이익	-4.7 (-8.1)	-4.9 (0.7)	-6.3 (3.3)	-20.9 (-0.3)	-5.2 (3.4)	-5.0 (6.5)
	투자영업이익	5.5 (-1.4)	5.0 (-4.2)	5.2 (-6.4)	21.4 (-0.7)	5.8 (0.7)	5.3 (-4.5)
	영업외이익	1.0 (11.3)	0.9 (-2.2)	1.1 (26.8)	3.9 (11.4)	1.1 (15.0)	1.0 (1.7)
	연 기준 당기순이익 ⁵⁾	5.6 (40.2)	4.9 (19.6)	3.6 (11.0)	3.6 (11.0)	5.3 (3.6)	4.6 (-17.9)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²⁾	0.6 (12.4)	0.5 (7.3)	0.2 (2.2)	1.9 (15.0)	0.7 (11.5)	0.8 (28.9)
	보험영업이익	-0.6 (28.6)	-0.7 (-3.0)	-1.1 (-5.1)	-3.3 (6.7)	-0.7 (-13.5)	-0.6 (-12.5)
	투자영업이익	1.5 (14.9)	1.4 (0.9)	1.4 (0.7)	6.0 (10.0)	1.6 (-2.5)	1.6 (9.2)
	영업외이익	0.0 (-45.2)	0.0 (-18.2)	0.0 (-55.6)	-0.2 (-13.4)	-0.1 (-5.5)	0.0 (38.6)
	연 기준 당기순이익 ⁵⁾	2.5 (20.7)	2.3 (16.6)	1.9 (15.0)	1.9 (15.0)	2.7 (11.5)	3.0 (20.3)
당기순이익 합계 ^{3),4)}		2.1 (33.0)	1.4 (-10.7)	0.1 (-72.3)	5.5 (12.3)	2.0 (6.1)	1.8 (-17.1)
연 기준 당기순이익 합계 ^{5),6)}		8.1 (33.6)	7.2 (18.7)	5.5 (12.3)	5.5 (12.3)	8.0 (6.1)	7.6 (-6.2)

주: 1)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국내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이 차감된 수치임.

4)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합계를 의미함.

5)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6)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누적 당기순이익 합계를 의미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ROE)의 경우 생명보험이 큰 하락폭을 보인 반면, 손해보험(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 제외)은 소폭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1.76%p 하락한 8.14%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2.54%p 하락한 6.77%를 나타냄.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0.26%p 상승한 11.82%를 나타냄.

■ 2016년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산이익률(ROA)의 경우 손해보험(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 제외)은 상승한 반면, 생명보험이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0.16%p 하락한 0.93%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0.25%p 하락한 0.75%를 나타냄.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0.10%p 상승한 1.48%를 나타냄.

〈표 6〉 보험산업 자본 및 자산이익률^{1),2)}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자본 이익률 (ROE)	생명보험	9.31	7.99	5.83	8.10	6.77
	손해보험	11.56	10.44	8.72	11.53	11.82
	합계	9.90	8.63	6.59	9.01	8.14
자산 이익률 (ROA)	생명보험	1.00	0.86	0.62	0.87	0.75
	손해보험	1.38	1.26	1.03	1.38	1.48
	합계	1.09	0.96	0.72	1.00	0.93

주: 1)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국내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3)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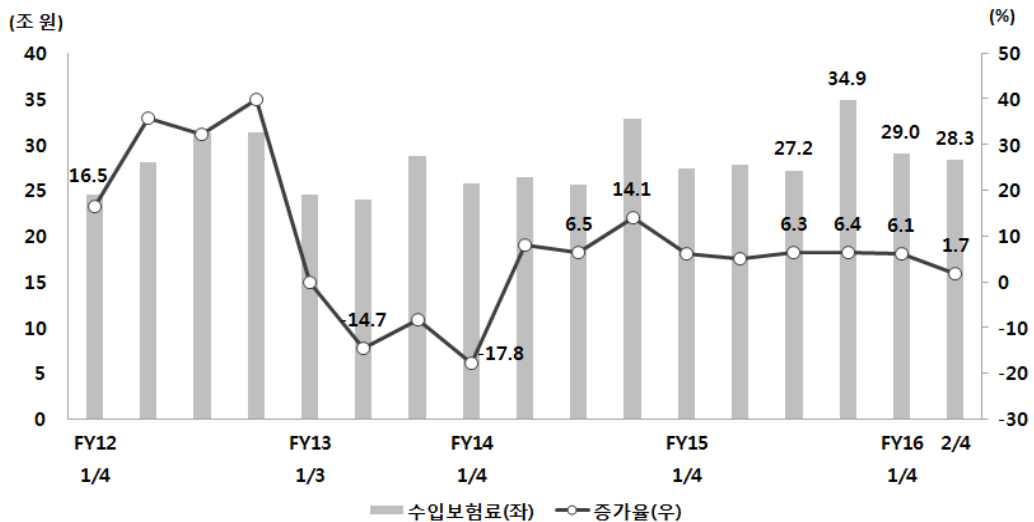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종목별 수입보험료〉

- 2016년 2/4분기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28조 3,283억 원을 기록함(〈그림 1〉 참조).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2/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과 변액보험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2% 줄어든 25조 3,528억 원을 나타냄.

- 생존보험³⁾ 수입보험료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과 저금리로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판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한 5조 3,563억 원을 기록함.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음.

- 특히, 계속보험료 증가율이 마이너스(-1.9%)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지속된 초회보험료 감소로 계속보험료 성장 여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연금선지급형 종신보험과 저해지환급금형 종신보험 등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한 9조 5,863억 원을 나타냄.
 - 생사혼합보험⁴⁾ 수입보험료의 경우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판매 확대 전략⁵⁾에 따른 단기납 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5조 6,050억 원을 시현함.
 - 다만, 저금리로 최저보증이율이 낮아지고 판매 확대 전략을 추진하였던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전략을 수정함에 따라 초회보험료 증가세는 전분기에 비해 둔화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주가지수 하락 및 변액연금 수요 위축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한 4조 8,052억 원을 기록함.
- 2016년 2/4분기 단체보험⁶⁾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5.9% 증가한 2조 9,755억 원을 나타냄.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가 모두 크게 늘어나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39.3% 증가한 2조 7,852억 원을 기록함.
 -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 1,902억 원임.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미리 정해진 시점(보험기간의 만료 시를 포함)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생존에 따른 보험금을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양로보험이 이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보다 만기생존 시 보험금이 크며, 만기생존 시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크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됨. 만기환급금이 있는 정기보험은 보험기간 만료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생사혼합보험과 유사함.

5) 저금리 환경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산운용 전략과 더불어 다른 회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고 있음.

6)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음.

〈표 7〉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수입보험료	61,157 (0.8)	61,327 (4.3)	61,482 (-2.3)	246,848 (2.7)	57,044 (-9.3)	53,563 (-12.4)
	초회보험료	15,243 (-14.8)	15,071 (-1.3)	14,238 (-18.4)	62,198 (-6.7)	11,565 (-34.5)	8,542 (-44.0)
	계속보험료	45,914 (7.4)	46,256 (6.3)	47,244 (3.9)	184,650 (6.3)	45,479 (0.5)	45,021 (-1.9)
사망	수입보험료	88,434 (7.7)	90,538 (8.9)	92,349 (8.3)	360,361 (8.6)	96,491 (8.4)	95,863 (8.4)
	초회보험료	4,015 (78.5)	5,346 (105.3)	4,479 (20.5)	20,272 (89.1)	7,470 (16.1)	4,252 (5.9)
	계속보험료	84,418 (5.7)	85,191 (5.8)	87,871 (7.8)	340,089 (5.9)	89,022 (7.8)	91,611 (8.5)
생사 혼합	수입보험료	53,500 (3.6)	51,152 (4.0)	57,187 (16.6)	213,771 (6.6)	66,400 (27.9)	56,050 (4.8)
	초회보험료	10,807 (-14.9)	8,719 (-12.3)	12,015 (34.5)	43,169 (-2.3)	22,310 (91.9)	13,059 (20.8)
	계속보험료	42,693 (9.6)	42,433 (8.2)	45,172 (12.6)	170,602 (9.1)	44,090 (9.4)	42,990 (0.7)
변액 보험	수입보험료	53,539 (4.5)	52,629 (2.0)	49,140 (-5.4)	206,431 (-0.1)	48,231 (-5.7)	48,052 (-10.2)
	초회보험료	3,942 (56.2)	4,168 (47.8)	2,377 (-5.1)	12,831 (22.8)	2,152 (-8.1)	2,624 (-33.5)
	계속보험료	49,597 (1.8)	48,461 (-0.7)	46,763 (-5.4)	193,600 (-1.4)	46,079 (-5.5)	45,428 (-8.4)
개 인 계	수입보험료	256,631 (4.5)	255,646 (5.3)	260,158 (4.4)	1,027,412 (4.9)	268,166 (5.2)	253,528 (-1.2)
	초회보험료	34,008 (-3.8)	33,304 (8.7)	33,109 (1.6)	138,470 (4.9)	43,497 (14.3)	28,477 (-16.3)
	계속보험료	222,623 (5.9)	222,342 (4.8)	227,049 (4.9)	888,942 (4.9)	224,669 (3.6)	225,051 (1.1)
일반 단체	수입보험료	1,906 (-5.7)	1,879 (-6.0)	1,845 (-1.7)	7,735 (-5.1)	2,120 (0.7)	1,902 (-0.2)
	초회보험료	258 (-4.0)	289 (1.5)	255 (19.0)	1,281 (1.2)	552 (15.1)	306 (18.3)
	계속보험료	1,648 (-5.9)	1,590 (-7.3)	1,590 (-4.4)	6,454 (-6.3)	1,568 (-3.5)	1,597 (-3.1)
퇴직 연금	수입보험료	19,988 (15.7)	14,100 (29.9)	86,626 (12.9)	136,990 (15.9)	19,647 (20.7)	27,852 (39.3)
	초회보험료	3,924 (-45.8)	4,317 (-5.1)	28,858 (-14.5)	43,436 (-15.5)	4,400 (-30.6)	5,094 (29.8)
	계속보험료	16,064 (60.1)	9,783 (55.1)	57,768 (34.3)	93,553 (40.0)	15,247 (53.4)	22,758 (41.7)
단 체 계 ³⁾	수입보험료	21,895 (13.5)	15,979 (24.3)	88,471 (12.5)	144,725 (14.5)	21,767 (18.4)	29,755 (35.9)
	초회보험료	4,183 (-44.3)	4,606 (-4.7)	29,112 (-14.3)	44,717 (-15.1)	4,952 (-27.4)	5,400 (29.1)
	계속보험료	17,712 (50.3)	11,373 (41.8)	59,359 (32.9)	100,008 (35.7)	16,815 (45.4)	24,355 (37.5)
합계	수입보험료	278,525 (5.1)	271,624 (6.3)	348,629 (6.4)	1,172,137 (6.0)	289,933 (6.1)	283,283 (1.7)
	초회보험료	38,191 (-10.9)	37,910 (6.9)	62,221 (-6.5)	183,187 (-0.8)	48,449 (8.0)	33,877 (-11.3)
	계속보험료	240,335 (8.2)	233,715 (6.2)	286,408 (9.6)	988,950 (7.4)	241,484 (5.7)	249,406 (3.8)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초회보험료는 1회 납입 보험료를 의미함.

3)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퇴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퇴직연금 의무 가입의 실시로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 작성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시장점유율〉

- 2016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의 경우 외국사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상위 3사와 국내 중·소형사는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동양생명이 2015년 4/4분기부터 국내 중·소형사에서 외국사로 변경⁷⁾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8%p 상승한 17.5%를 나타냄.
 - 상위 3사와 국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외국사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p, 2.6%p 하락한 45.1%, 37.3%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초회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의 경우 특히 외국사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 외국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동양생명의 외국사 편입과 일부 회사의 생사혼합보험 신규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8%p 상승한 26.4%를 나타냄.
 - 상위 3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신규 판매를 축소함에 따라 상위 3사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0.8%p 감소한 24.6%를 나타냄.
 - 국내 중·소형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외국사 비중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49.0%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생명보험 허핀달지수는 전년동기대비 51이 하락한 1,010을 기록함.
 - 외국사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확대되면서 시장집중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임.

7) 2015년 10월 동양생명이 안방보험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2015년 4/4분기부터 외국사에 포함됨.

〈표 8〉 생명보험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점유율 ²⁾	상위 3사	46.4	45.9	48.0	46.8	46.5	45.1
		국내 중·소형사 ³⁾	39.9	40.6	38.9	37.2	35.2	37.3
		외국사 ⁴⁾	13.7	13.5	13.1	15.9	18.3	17.5
	허핀달 지수 ⁵⁾		1,061	1,020	1,058	1,053	1,027	1,010
초회보험료	점유율	상위 3사	35.4	33.2	39.3	38.0	38.6	24.6
		국내 중·소형사	50.0	54.1	54.9	50.8	36.5	49.0
		외국사	14.6	12.7	5.8	11.2	24.9	26.4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각 회사점유율 = 각 회사 수입보험료 / 전체 수입보험료, 상위 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 점유율은 회사 분류에 따라 각 회사 점유율을 합친 값임.

3) 국내 중·소형사(13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이며, 동양생명은 2015년 10월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2015년 4/4분기부터 외국사에 포함됨.

4)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2016년 3월 말 기준 알리안츠생명 등 9개사임.

5)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 2016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59.7%를 기록함.

- 생존보험 지급률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늘어나고 수입보험료는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12.9%p 상승한 69.4%를 나타냄.
-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56.1%를 나타냈으며, 이는 지급보험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사망보험 지급률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47.8%를 나타냈으며, 변액보험 지급률은 전년 동기대비 3.5%p 상승한 73.0%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전체 사업비율과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3%p, 0.1%p 하락한 13.4%, 4.5%를 기록함.

〈표 9〉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전체 보험금 지급률 ¹⁾	59.0	55.3	53.5	57.1	58.5	59.7
개인	56.0	52.9	54.2	55.0	54.4	59.0
생존	56.5	58.0	62.1	57.5	65.0	69.4
사망	47.9	46.8	48.1	48.3	48.8	47.8
생사혼합	55.5	54.2	48.2	55.1	47.9	56.1
변액	69.5	55.9	62.7	63.3	61.8	73.0
단체	94.2	94.7	51.4	72.6	110.0	65.4
일반단체	117.7	108.9	115.7	114.5	109.3	106.7
퇴직연금	92.0	92.8	50.1	70.2	110.0	62.6
사업비율 ²⁾	13.7	14.3	11.7	13.3	13.3	13.4
해지율 ³⁾	4.6	6.6	8.6	8.6	2.3	4.5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여기서 효력상실액이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을 의미함. 그리고 해지액이란 보험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보험료 적립금에서 보험회사의 운영비 및 해지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⁸⁾〉

■ 2016년 2/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의 경우 임직원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되었으나 다른 채널의 비중은 대부분 축소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단체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9%p 확대된 15.5%를 나타냄.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5%p 축소된 61.7%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 채널의 주요 판매 상품인 생사혼합보험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채널 비중이 더 크게 확대됨에 따라 비중이 소폭 축소됨.
- 설계사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 상품인 연금보험의 신규 판매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4.4%p 줄어든 15.8%를 차지함.

〈표 10〉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임직원	10.6	11.7	39.0	21.5	9.7	15.5
설계사	20.2	22.2	18.4	20.0	16.8	15.8
대리점	6.5	6.9	5.3	6.2	5.8	6.7
중개사	0.0	0.1	0.0	0.1	0.1	0.1
방카슈랑스	62.2	58.8	37.0	52.0	67.4	61.7
기타	0.5	0.4	0.2	0.3	0.2	0.2
합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8,191	37,910	62,221	183,187	48,449	33,877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2) 현재 온라인 채널 초회보험료 비중은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못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8) 판매채널은 크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되며, 최근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등장하였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10〉와 같이 판매채널을 구분하여 초회보험료(1회 납입보험료) 비중을 제시함.

〈모집조직〉

■ 2016년 2/4분기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경우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임직원 수와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235명 감소한 2만 7,105명임.
-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1,900명 줄어든 11만 4,998명을 기록하였으며, 교차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293명 감소한 1만 15명을 나타냄.
- 전체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12개 증가한 6,119개를 기록함.
 - 개인대리점 수는 3,176개로 전분기대비 37개 증가한 반면, 법인대리점 수는 2,943개로 전분기대비 25개 감소함.

〈표 11〉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임직원(명)	27,538	27,532	27,312	27,340	27,105
설계사(명)					
- 전속설계사	120,933	120,203	117,311	116,898	114,998
- 교차설계사	8,863	9,239	9,906	10,308	10,015
대리점(개)	6,266	6,159	6,010	6,107	6,119
- 개인	3,081	3,036	3,054	3,139	3,176
- 법인	3,185	3,096	2,956	2,968	2,943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자산〉

- 2016년 2/4분기 말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6% 증가한 760조 9,584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자산은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2.9% 증가함.
- 특별계정 자산은 퇴직연금 관련 자산 증가로 전분기대비 0.9% 증가함.

〈표 12〉 생명보험산업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총자산	금액	685.7	691.0	707.1	724.9	724.9	742.0	761.0
	증가율	3.6	0.8	2.3	2.5	9.5	2.4	2.6
일반계정 자산	금액	565.7	570.1	586.4	601.1	601.1	613.2	631.0
	증가율	2.8	0.8	2.9	2.5	9.2	2.0	2.9
특별계정 자산	금액	120.0	121.0	120.7	123.8	123.8	128.8	130.0
	증가율	7.4	0.8	-0.2	2.6	10.8	4.1	0.9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일부 수치가 반올림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부채 · 자본〉

- 2016년 2/4분기 말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7.1% 증가함.
- 총부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의 경우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전분기대비 2.0% 늘어남.
- 총자본 가운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확대로 전분기대비 15.1% 증가함.

〈표 13〉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총자산	금액	691.0	707.1	724.9	724.9	742.0	761.0
	증가율	0.8	2.3	2.5	9.5	2.4	2.6
총부채	금액	629.8	643.2	660.9	660.9	675.0	689.2
	증가율	1.3	2.1	2.8	9.6	2.1	2.1
책임준비금	금액	482.8	493.5	505.7	505.7	517.4	527.5
	증가율	2.2	2.2	2.5	9.5	2.3	2.0
계약자 지분조정	금액	8.9	9.3	9.5	9.5	10.4	11.8
	증가율	-16.0	3.9	1.8	4.4	10.3	12.7
기타부채	금액	15.9	18.7	17.8	17.8	17.8	18.6
	증가율	-12.1	17.4	-4.9	17.1	0.0	4.6
특별계정부채	금액	122.2	121.7	127.9	127.9	129.5	131.3
	증가율	1.2	-0.4	5.1	9.5	1.2	1.4
총자본	금액	61.2	63.9	64.0	64.0	67.0	71.8
	증가율	-4.2	4.5	0.1	8.2	4.7	7.1
자본금	금액	9.8	10.1	10.4	10.4	10.4	10.4
	증가율 ²⁾	0.5	3.1	2.6	6.2	0.0	0.0
자본잉여금	금액	5.8	6.0	6.0	6.0	6.0	6.0
	증가율	0.0	2.1	0.5	2.6	0.0	0.0
이익잉여금	금액	27.2	28.0	27.9	27.9	28.2	29.1
	증가율	5.8	3.0	-0.6	9.7	1.2	3.2
자본조정	금액	-1.6	-1.6	-2.6	-2.6	-3.1	-3.1
	증가율	0.0	0.4	64.9	73.1	21.1	0.0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19.8	21.3	22.3	22.3	25.5	29.4
	증가율	-17.5	7.6	4.6	14.0	14.3	15.1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일부 수치가 반올림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수익 · 총비용〉

■ 2016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모두 악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6.1% 감소한 9,700억 원을 나타냄.

○ 보험영업⁹⁾ 적자규모는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와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5% 확대된 5조 224억 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운용자산 이익률 하락과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한 5조 2,694억 원을 시현함.

○ 영업외이익은 특별계정수수료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9,803억 원을 기록함.

■ 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7.9% 감소한 4조 5,939억 원임.

〈표 14〉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보험영업이익 ³⁾	-4,714 (-8.1)	-4,865 (0.7)	-6,314 (3.3)	-20,924 (-0.3)	-5,201 (3.4)	-5,022 (6.5)
투자영업이익	5,520 (-1.4)	5,000 (-4.2)	5,173 (-6.4)	21,415 (-0.7)	5,760 (0.7)	5,269 (-4.5)
영업외이익	964 (11.3)	933 (-2.2)	1,051 (26.8)	3,872 (11.4)	1,062 (15.0)	980 (1.7)
소계	12,151 (5.4)	11,640 (5.4)	12,036 (6.6)	47,722 (8.3)	13,093 (10.1)	11,274 (-7.2)
법인세	252	181	5	770	294	258
당기순이익 ⁴⁾	1,518 (43.9)	887 (-18.2)	-95 (-160.7)	3,592 (11.0)	1,327 (3.6)	970 (-36.1)
연 기준 당기순이익 ⁵⁾	5,598 (40.2)	4,915 (19.6)	3,592 (11.0)	3,592 (11.0)	5,308 (3.6)	4,594 (-17.9)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3)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감안한 수치이고, 책임준비금전입액은 책임준비금(부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반대의 경우 책임준비금환입액)을 의미하며, 손익계산서의 보험영업비용(반대의 경우 수익) 항목임.

4) 당기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 - 책임준비금전입액 - 법인세

5)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 환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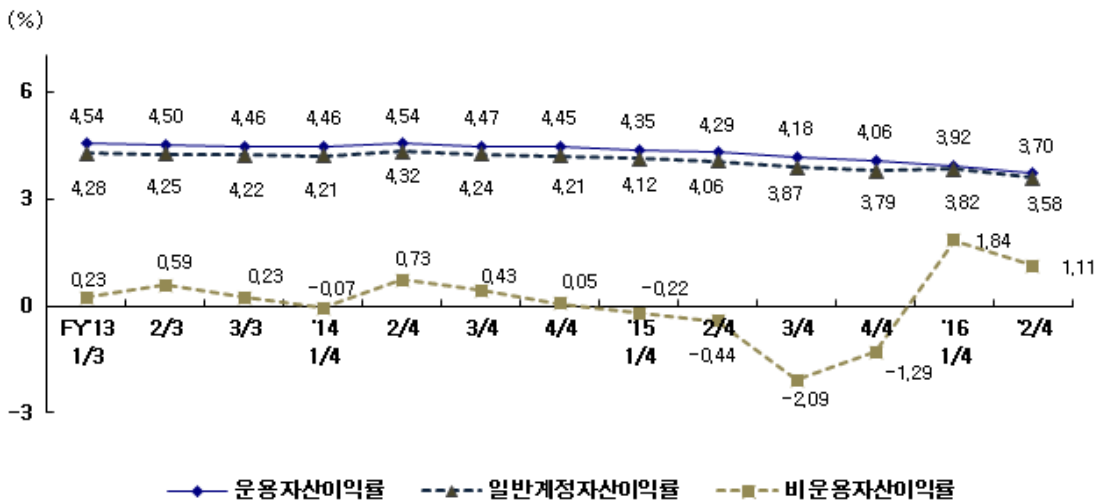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9) 보험영업이익에서 책임준비금전입액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자산운용〉

- 2016년 2/4분기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8%p 하락한 3.58%를 나타냄.
 - 운용자산 이익률은 대부분 종목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59%p 하락한 3.70%를 기록함.
 - 운용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이익률은 3.44%로 전년동기 대비 0.61%p 하락함.
 - 비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55%p 상승한 1.11%를 나타냄.
- 2016년 2/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의 경우 유가증권이 73.7%, 대출채권이 17.5%, 부동산이 2.3%, 현금과 예금이 2.1%, 비운용자산이 4.4%를 차지함.¹⁰⁾
 - 유가증권 비중은 전년동기인 2015년 2/4분기 대비 0.8%p 확대됐지만, 현금과 예금, 부동산 비중은 각각 0.1%p, 0.3%p 축소됨.

〈그림 2〉 자산운용 이익률^{1),2),3)}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연 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0) 일반계정 자산은 크게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비중은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15〉 생명보험 일반계정자산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¹⁾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02	100.0	3.81	100.0	3.72	100.0	3.80	100.0	3.58
운용자산 계	95.2	4.25	95.3	4.11	95.4	3.98	95.3	3.90	95.6	3.70
현금과 예금	2.2	3.15	2.5	4.04	2.6	3.33	2.2	1.92	2.1	2.39
유가증권	72.9	4.02	72.8	3.83	72.7	3.66	73.2	3.66	73.7	3.44
○ 당기손익인식증권 ²⁾	3.1	3.12	2.8	1.81	2.2	2.01	2.1	2.21	2.2	1.86
- 주식	0.1	16.45	0.1	4.45	0.1	0.47	0.1	1.47	0.1	-0.47
- 채권 등	0.7	4.95	0.7	1.36	0.6	2.44	0.7	3.43	0.6	3.31
- 수익증권	2.4	2.00	2.0	1.86	1.5	1.91	1.4	1.69	1.5	1.39
○ 매도가능증권	51.1	4.05	51.2	3.88	52.4	3.61	52.5	3.67	52.7	3.44
- 주식	3.7	3.11	3.2	2.52	3.3	1.87	3.4	6.67	3.4	3.44
- 채권 등	43.6	4.02	44.5	3.92	45.5	3.71	45.5	3.46	45.7	3.41
- 수익증권	3.8	5.38	3.5	4.76	3.6	4.07	3.6	3.42	3.6	3.83
○ 만기보유증권	17.1	4.24	17.3	4.22	16.6	4.27	16.9	3.73	17.2	3.71
- 채권 등	17.1	4.24	17.3	4.22	16.6	4.27	16.9	3.73	17.2	3.71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6	2.59	1.5	2.20	1.5	2.16	1.7	4.63	1.6	2.71
대출채권	17.4	5.49	17.4	5.39	17.7	5.27	17.5	5.04	17.5	4.94
부동산	2.6	3.32	2.6	3.38	2.5	4.59	2.4	4.82	2.3	3.80
비운용자산 계	4.8	-0.44	4.7	-2.10	4.6	-1.30	4.7	1.84	4.4	1.11
일반계정자산 규모	5,700,533		5,864,075		6,011,311		6,132,374		6,309,910	

주: 1) 이익률은 분기별 누계실적임.

2)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2/4분기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한 총자산의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88%p 하락한 3.38%를 기록함.

〈표 16〉 생명보험 총자산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총자산	100.0	4.26	100.0	3.56	100.0	3.53	100.0	3.63	100.0	3.38
일반계정 자산	82.5	4.02	82.9	3.81	82.9	3.72	82.6	3.80	82.9	3.58
특별계정 자산	17.5	5.44	17.1	2.31	17.1	2.60	17.4	2.80	17.1	2.38
총자산 규모	6,910,114		7,070,753		7,249,013		7,420,247		7,609,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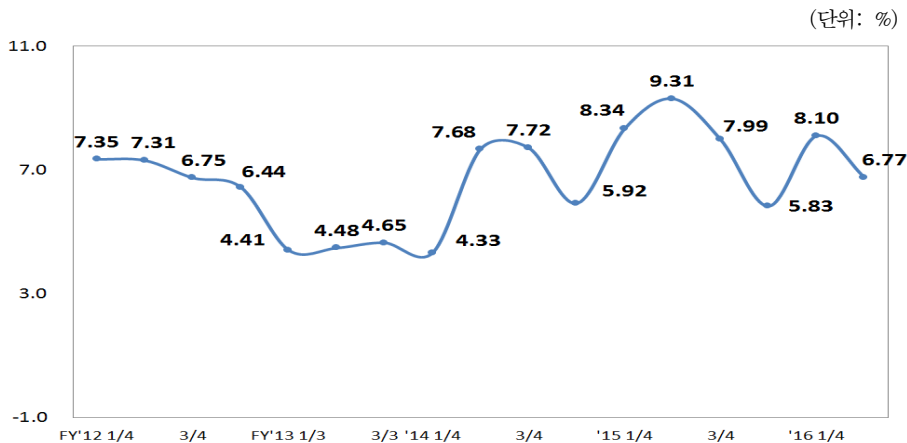
주: 이익률은 분기별 누계실적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본이익률(ROE)¹¹⁾〉

■ 2016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누적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4%p 하락한 6.77%로 악화됨.

○ 회사 그룹별¹²⁾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2.56%p, 3.32%p, 1.82%p 하락한 6.31%, 5.60%, 10.46%를 나타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7〉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대형사	8.87	7.68	5.73	7.47	6.31
중·소형사	8.92	7.42	6.46	6.31	5.60
외국사	12.28	10.71	5.17	13.47	10.46
전체	9.31	7.99	5.83	8.10	6.77

주: 1)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누적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분석 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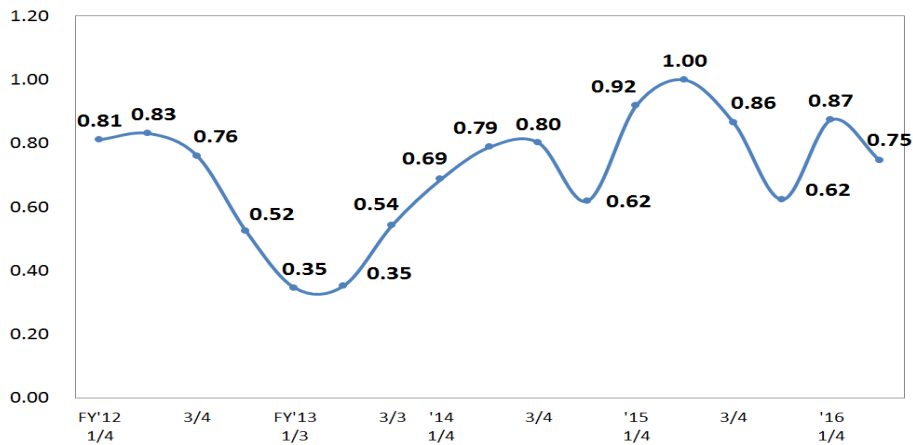
12) 2015년 회계연도부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로 분류되었던 회사 분류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거 통계치도 동일하게 수정함.

〈자산이익률(ROA)¹³⁾〉

- 2016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5%p 하락한 0.75%를 기록함.
○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자산이익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29%p, 0.25%p, 0.35%p 하락한 0.75%, 0.48%, 1.36%를 나타냄.

〈그림 4〉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8〉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대형사	1.04	0.91	0.66	0.87	0.75
중·소형사	0.73	0.61	0.54	0.54	0.48
외국사	1.71	1.51	0.68	1.72	1.36
전체	1.00	0.86	0.62	0.87	0.75

주: 1)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3)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대비 누적 당기 순이익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원수보험료〉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20조 5,152억 원을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은 전분기 장기저축성보험의 급격한 위축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전년 동기대비 1.2% 증가) 2/4분기는 소폭(2.9%) 상승하여 11조 8,954억 원을 기록함.
- 연금부문의 경우는 퇴직연금의 회복에 힘입어 두 분기에 걸친 감소세에서 벗어나 전년동기대비 24.7% 상승한 2조 2,267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의 선전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한 2조 2,543억 원을 기록함.
- 특히, 자동차보험은 2014년 이후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2/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4조 1,387억 원을 시현함.

〈표 1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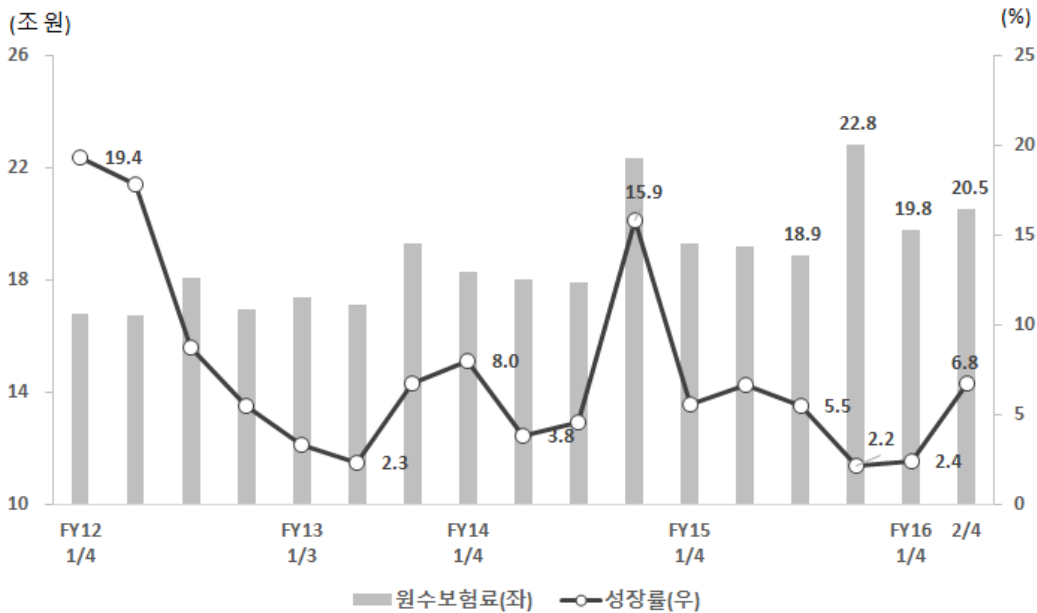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11.6	11.7	11.7	46.6	11.8	11.9
	증가율	(5.6)	(4.8)	(4.2)	(4.9)	(1.2)	(2.9)
연금부문	보험료	1.8	1.6	5.0	10.4	1.9	2.2
	증가율	(10.5)	(8.6)	(-8.5)	(-0.9)	(-6.5)	(24.7)
자동차보험	보험료	3.7	3.7	4.0	15.0	3.9	4.1
	증가율	(10.7)	(9.0)	(13.7)	(10.7)	(11.6)	(11.1)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2.1	1.9	2.1	8.3	2.2	2.3
	증가율	(2.5)	(1.0)	(-0.2)	(1.8)	(2.2)	(5.3)
전체	보험료	19.2	18.9	22.8	80.2	19.8	20.5
	증가율	(6.6)	(5.5)	(2.2)	(4.8)	(2.4)	(6.8)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으로 구성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 원수보험료 추이



1) 장기손해보험

■ 2016년 2/4분기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9% 증가¹⁴⁾한 11조 8,954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장기저축성보험의 큰 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영역이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기 때문임.

○ 장기저축성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9.7% 감소하였으며, 신규판매 부진으로 2014년 2/4분기 이후 연속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저금리 추세 장기화로 인한 공시이율 하락,¹⁵⁾ 저금리 리스크 확대에 의한 보험회사의 판매부담 증대 등으로 신규수요가 위축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여 각각 11.0%, 13.7% 증가함.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의 경우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7.9%, 4.5% 증가함.

14) 이는 2015년 2/4분기 증가율 5.9%보다는 낮으나, 직전 분기(2016년 1/4분기)의 1.2%보다는 높은 수치임.

15) 보험개발원, 공시기준이율: 2013년(3.78%), 2014년(3.57%), 2015년(2.81%), 2016년(1월: 2.6%, 3월: 2.5%, 7월: 2.4%, 9월: 2.3%).

■ 2016년 2/4분기 초회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2.6% 줄어든 3,925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장기저축성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6.3% 감소함.

- 이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2015년 1/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감소폭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장기질병보험은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하였으며, 장기상해보험은 6.3% 증가함.

- 장기질병보험 초회원수보험료는 2/4분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계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2/4분기의 경우는 특히 전년동기의 실적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저효과인 것으로 보임.

- 장기상해보험의 경우는 4/4분기의 실적이 제일 많은 계절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의 분기들은 변동성이 매우 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양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0〉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원수 보험료	상해	보험료 증가율	32,644 (12.1)	33,435 (11.5)	34,587 (11.8)	132,555 (12.0)	35,418 (11.1)	36,218 (11.0)
	운전자	보험료 증가율	7,020 (9.0)	7,141 (7.8)	7,247 (6.8)	28,327 (8.0)	7,390 (6.8)	7,572 (7.9)
	재물	보험료 증가율	9,929 (6.3)	10,025 (6.9)	10,161 (7.0)	39,808 (6.2)	10,198 (5.2)	10,375 (4.5)
	질병	보험료 증가율	27,174 (16.9)	28,177 (16.5)	29,201 (16.5)	110,607 (16.6)	30,253 (16.1)	30,890 (13.7)
	저축성	보험료 증가율	26,345 (-9.1)	25,259 (-11.8)	23,533 (-15.1)	104,650 (-11.0)	22,239 (-24.6)	21,152 (-19.7)
	통합형	보험료 증가율	12,512 (1.2)	12,484 (0.9)	12,402 (0.3)	49,808 (1.0)	12,364 (-0.4)	12,741 (1.8)
	자산 연계형	보험료 증가율	8 (-79.6)	8 (-79.3)	8 (-79.3)	46 (-70.4)	7 (-67.4)	7 (-12.4)
	소계	보험료 증가율	115,632 (5.6)	116,530 (4.8)	117,140 (4.2)	465,801 (4.9)	117,868 (1.2)	118,954 (2.9)
초회 보험료	상해	보험료 증가율	548 (-12.7)	635 (-0.6)	771 (6.5)	2,637 (1.8)	610 (-10.7)	582 (6.3)
	운전자	보험료 증가율	136 (13.1)	164 (-12.9)	135 (-12.5)	570 (-1.5)	179 (33.5)	175 (28.1)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재물	보험료	307	268	292	1,185	299	333
		증가율	(20.3)	(5.5)	(6.8)	(17.6)	(-6.0)	(8.2)
	질병	보험료	587	627	649	2,469	733	544
		증가율	(12.1)	(12.5)	(5.1)	(6.5)	(20.7)	(-7.3)
	저축성	보험료	3,474	3,544	2,757	14,657	2,145	2,212
		증가율	(-19.4)	(-16.6)	(-28.8)	(-20.3)	(-56.1)	(-36.3)
	통합형	보험료	17	12	9	68	6	80
		증가율	(-69.7)	(-79.0)	(-88.3)	(-75.3)	(-81.4)	(366.3)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0	0	0	0	0
		증가율	(-)	(-)	(-)	(-)	(-)	(-)
	소계	보험료	5,070	5,249	4,612	21,585	3,971	3,925
		증가율	(-14.0)	(-11.7)	(-19.3)	(-14.2)	(-40.3)	(-22.6)
계속 보험료	상해	보험료	32,096	32,801	33,816	129,919	34,808	35,636
		증가율	(12.7)	(11.7)	(11.9)	(12.2)	(11.5)	(11.0)
	운전자	보험료	6,883	6,977	7,112	27,757	7,211	7,397
		증가율	(9.0)	(8.4)	(7.2)	(8.2)	(6.3)	(7.5)
	재물	보험료	9,622	9,758	9,869	38,623	9,899	10,042
		증가율	(5.9)	(6.9)	(7.0)	(5.9)	(5.6)	(4.4)
	질병	보험료	26,587	27,550	28,553	108,138	29,520	30,346
		증가율	(17.0)	(16.6)	(16.8)	(16.8)	(16.0)	(14.1)
	저축성	보험료	22,872	21,716	20,776	89,993	20,094	18,940
		증가율	(-7.3)	(-11.0)	(-12.9)	(-9.3)	(-18.4)	(-17.2)
	통합형	보험료	12,495	12,472	12,394	49,740	12,359	12,661
		증가율	(1.6)	(1.2)	(0.8)	(1.4)	(-0.2)	(1.3)
	자산 연계형	보험료	8	8	8	46	7	7
		증가율	(-79.6)	(-79.3)	(-77.9)	(-70.4)	(-67.4)	(-12.4)
	소계	보험료	110,562	111,281	112,528	444,215	113,898	115,029
		증가율	(6.7)	(5.7)	(5.5)	(6.0)	(3.7)	(4.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초회보험료는 1회 납입보험료를 의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2/4분기 누적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4%p 개선된 5.4%를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 5.2%를 기록하였음.

- 이는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15.8% 증가한 반면, 효력상 실액 및 해지액은 3.2% 감소했기 때문임.

○ 장기저축성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한 4.5%를 기록하였음.

-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과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5.9%, 8.8% 감소하였으나,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의 감소액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임.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 해지율은 각각 0.8%p, 0.2%p 증가한 6.5%, 7.5%를 기록하였음.

- 이는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증가율(29.3%, 22.5%)이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 증가율(15.0%, 19.5%)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표 21〉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상해	6.2	8.7	10.7	2.9	5.2
운전자	5.7	8.0	10.0	3.5	6.5
재물	7.3	10.3	13.1	4.1	7.5
질병	4.8	6.8	8.6	2.5	4.7
저축성	4.9	6.9	9.0	2.4	4.5
통합형	3.9	5.7	7.2	1.6	2.9
계	5.8	8.2	10.3	3.0	5.4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

■ 2016년 2/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큰 증가율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한 2조 2,267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2013년 3/4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2/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3.2% 줄어든 9,696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은 2015년 4/4분기와 2016년 1/4분기 모두 10% 가량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6년 2/4분기는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전년동기대비 60.3% 증가)를 보이며 1조 2,571억 원의 보험료를 거수함.

- 그러나 2015년 기준 2/4분기의 보험료 비중은 전체의 12.3%에 불과하므로, 2016년 2/4분기 퇴직연금의 상승세가 연간 실적에 미칠 영향은 아직 미지수임.

〈표 22〉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개인 연금	보험료	10,015	9,994	10,137	40,211	9,796	9,696
	증가율	-2.3	-2.0	-1.5	-2.1	-2.7	-3.2
	구성비	56.1	63.9	20.3	38.7	51.5	6.9
퇴직 연금 ³⁾	보험료	7,840	5,639	39,918	63,668	9,227	12,571
	증가율	32.7	34.4	-10.1	-0.1	-10.2	60.3
	구성비	43.9	36.1	79.7	61.3	48.5	8.9
합계	보험료	17,855	15,633	50,055	103,879	19,023	22,267
	증가율	10.5	8.6	-8.5	-0.9	-6.5	24.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2016년 2/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4조 1,387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와 요율 인상, 물적담보 보장 확대 등에 기인함.

○ 대인배상 I 은 최근의 지속적인 감소세에서 벗어나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7,527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은 2014년 3/4분기의 0.6% 증가를 제외하고는 FY2011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 이는 그동안 대인배상 I 의 실적 손해를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에는 대인배상 지급기준 변경과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인하폭이 더 컸을 것으로 보임.

○ 종합보험은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 외에도 최근 계속된 요율 인상과 외산차 가입증가·대물 가입금액 고액화·자차담보 가입 증가 등으로 인한 물적 담보 보장확대 수요 증가로 14.2% 늘어난 3조 1,711억 원을 기록함.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대인 I		7,503 (-4.4)	7,269 (-7.9)	7,589 (-2.7)	29,855 (-4.2)	7,296 (-2.7)	7,527 (0.3)
종합 보험	대인 II	3,998 (18.8)	4,125 (20.2)	4,538 (25.6)	16,292 (19.1)	4,495 (23.8)	4,991 (24.8)
	대물	13,012 (12.3)	13,217 (11.4)	14,423 (16.2)	52,966 (13.0)	14,359 (16.6)	15,362 (18.1)
	자차	9,062 (18.8)	9,072 (17.1)	9,648 (21.0)	36,261 (17.5)	9,574 (12.9)	9,533 (5.2)
	자손	1,446 (13.4)	1,464 (8.8)	1,583 (12.5)	5,877 (12.0)	1,487 (7.5)	1,542 (6.6)
	무보험	250 (11.3)	253 (8.5)	273 (16.3)	1,007 (10.4)	260 (12.5)	284 (13.6)
	소계	27,768 (15.3)	28,131 (14.2)	30,466 (18.8)	112,402 (15.2)	30,175 (15.9)	31,711 (14.2)
외화표시		36 (25.4)	28 (22.1)	2 (-96.2)	99 (-13.5)	1 (-97.8)	0 (-99.1)
기타		1,962 (14.8)	1,927 (12.5)	1,937 (13.9)	7,558 (13.7)	1,910 (10.2)	2,148 (9.5)
합계		37,269 (10.7)	37,355 (9.0)	39,992 (13.7)	149,914 (10.7)	39,382 (11.6)	41,387 (11.1)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구분란의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2/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2.7%p 하락한 82.1%를 나타냄.

- 대인배상 I 은 전년동기대비 5.4%p 상승한 74.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5.2% 증가한 반면 경과보험료¹⁶⁾는 2.3% 감소하였기 때문임.
- 종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0%p 하락한 86.4%를 나타냈는데,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 등으로 경과보험료가 두 자릿수 이상(14.2%) 증가하였기 때문임.

16)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인 보험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연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로 귀속되고 나머지는 차기 사업연도로 넘어감. 여기서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회사의 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라고 함.

- 대인배상Ⅱ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5.8%p 악화된 141.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최근 대인배상 지급기준 변경,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¹⁷⁾ 등 지급액 증가¹⁸⁾에 비해 보험료 수입의 증가분¹⁹⁾이 상대적으로 더 작았기 때문임.

〈표 24〉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대인 I		69.5	74.3	85.3	73.7	68.7	74.9
종합 보험	대인 II	135.3	142.9	148.0	142.7	134.2	141.1
	대물	88.4	90.9	93.9	90.0	82.6	85.4
	자차	77.8	76.0	78.0	78.5	73.8	66.6
	자손	62.0	59.8	66.2	65.0	59.7	63.3
	무보험	94.1	71.1	84.0	88.0	72.9	81.0
	소계	90.4	91.7	95.1	92.5	86.0	86.4
외화표시		66.2	74.4	93.4	76.9	62.7	55.9
기타		71.4	79.8	83.6	77.5	77.6	70.0
합계		84.8	87.7	92.2	87.7	82.2	82.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구분란의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2016년 2/4분기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한 2조 2,543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원수보험료 기준 일반손해보험의 65.5%를 차지하고 있는 특종보험의 상승세에 기인함.
- 화재보험은 0.5% 줄어든 733억 원을 나타내었으며, 해상보험은 조선·해운업계 불황에 기인하여 8.7% 줄어든 1,678억 원을 기록함.

17) 2015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전년대비 32.7%)은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하며, 건강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2.1%)의 16배에 달함; 송윤아(2016),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KiRI 리포트』, 제403호, 보험연구원.

18)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함.

19) 경과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함.

- 보증보험은 0.9% 감소한 4,017억 원을 나타냈는데, 건축허가 증가²⁰⁾에 따른 보증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용보험 등의 요율조정에 따른 보험료 감소와 국내산업 구조조정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특종보험은 8.3% 증가한 1조 4,785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질병보험과 종합보험의 감소²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종목이 상승세²²⁾를 나타냈기 때문임.
 - 특히, 책임보험과 기타특종보험은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²³⁾을 기록하여, 특종보험의 상승세를 주도하였음.

〈표 25〉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료	736	683	893	3,041	720	733
	증가율	-0.4	-2.8	-1.3	-2.1	-1.2	-0.5
	구성비	3.4	3.5	4.2	3.7	3.3	3.3
해상	보험료	1,837	1,820	1,554	7,091	1,506	1,678
	증가율	-4.7	-1.0	-15.1	-3.4	-19.9	-8.7
	구성비	8.6	9.4	7.4	8.6	7.0	7.4
보증	보험료	4,054	3,713	4,150	15,816	3,884	4,017
	증가율	11.0	2.8	2.5	4.4	-0.4	-0.9
	구성비	18.9	19.2	19.7	19.1	18.0	17.8
특종	보험료	13,651	11,536	13,088	51,622	14,102	14,785
	증가율	4.2	0.0	2.3	3.3	5.7	8.3
	구성비	63.8	59.7	62.0	62.3	65.5	65.6
해외 원보험	보험료	1,122	1,557	1,413	5,309	1,318	1,329
	증가율	-22.9	8.0	-9.3	-9.0	8.3	18.5
	구성비	5.2	8.1	6.7	6.4	6.1	5.9
합계	보험료	21,401	19,309	21,098	82,879	21,530	22,543
	증가율	2.5	1.0	-0.2	1.8	2.2	5.3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38.1% 증가한 1억 9,065만 2천㎡, 동수는 12.3% 증가한 26만 5,651동이라고 밝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3. 9), “15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38.1% 증가”.

21) 질병보험과 종합보험의 2016년 2/4분기 원수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4.6%, 4.5% 감소한 179억 원, 4,162억 원을 기록함.

22) 기술보험(833억 원), 근재보험(312억 원), 상해보험(3,623억 원), 기타특종보험(3,079억 원)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4%, 1.4%, 2.1%, 1.8% 성장함.

23) 책임보험(2,498억 원)과 기타특종보험(3,079억 원)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7.2%, 29.2% 성장함.

〈시장점유율〉

■ 2016년 2/4분기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와는 거의 동일하지만 전년동기와 대비하면 국내 중·소형사와 전업사, 외국사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상위 4사의 점유율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4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36%p 증가한 69.1%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와 전업사,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02%p, 0.15%p, 0.19%p 감소한 26.9%, 2.0%, 2.1%를 나타냄.

■ 허핀달 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소폭(2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의 경우는 28포인트 증가한 1,415를 나타냄.

〈표 26〉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4사 ²⁾	68.7	69.5	69.6	68.9	69.0	69.1
국내 중·소형사 ²⁾	26.9	26.3	26.8	27.1	26.9	26.9
전업사 ³⁾	2.1	2.0	1.8	2.0	1.9	2.0
외국사 ³⁾	2.3	2.2	1.8	2.1	2.1	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허핀달 지수 ⁴⁾	1,387	1,425	1,410	1,395	1,417	1,415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보험사, 국내·외 재보험사 및 외국계 단종보험회사를 포함함.

4)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율과 사업비율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81.3%를 기록하였는데, 종목별로는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손해율이 하락함.
- 전체 손해보험 발생손해액과 경과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3.5%, 4.7%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84.1%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은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의 증가분(10.7%)이 더 커, 손해율은 2.7%p 하락한 82.1%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은 경과보험료 기준 55.7%를 차지하고 있는 특종보험의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3.0%p 상승²⁴⁾하였으나, 보증보험 손해율이 2.8%p 하락²⁵⁾한 47.5%를 기록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0.9%p 개선된 64.4%를 시현함.

〈표 27〉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손 해 율	장기손해보험 ²⁾	84.5	84.1	84.5	84.8	85.2	84.1
	자동차보험	84.8	87.7	92.2	87.7	82.2	82.1
	일반손해보험	65.3	74.8	58.2	65.9	59.0	64.4
	화재보험	43.5	57.7	32.3	49.8	59.9	51.9
	해상보험	70.1	94.3	69.8	73.1	64.7	35.5
	보증보험	50.3	54.3	26.9	52.9	26.9	47.5
	특종보험	67.1	70.3	65.5	67.0	66.2	70.1
	해외원보험	135.0	235.2	15.5	114.7	75.4	85.8
	해외수재보험	61.7	76.1	72.7	65.7	61.7	66.0
	전체	82.3	83.7	82.9	83.1	81.6	81.3
사업비율		18.9	19.1	20.6	19.5	19.4	19.2
합산비율		101.1	102.8	103.4	102.7	101.0	100.5

주: 1) 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그리고 합산비율(손해율 + 사업비율)은 개인 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급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4) 경과보험료 3.6% 증가, 발생손해액 8.2% 증가.

25) 경과보험료 3.3% 증가, 발생손해액 2.4% 감소.

- 2016년 2/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한 19.2%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함.²⁶⁾
- 2016년 2/4분기 합산비율은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하고, 사업비율이 0.3%p 상승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0.6%p 개선된 100.5%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각각 103.1%, 100.5%, 86.0%를 기록함.

26)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19.0%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p, 0.1%p 감소한 18.4%, 21.6%p를 기록함.

다. 판매채널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²⁷⁾〉

■ 2016년 2/4분기 설계사와 대리점 및 방카슈랑스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보다 축소되었으나, 임직원과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확대됨.

- 설계사 채널과 대리점 채널 및 방카슈랑스 채널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p, 0.1%p, 1.0%p 축소된 27.1%, 43.7%, 10.3%를 기록함.
- 임직원 채널은 전년동기대비 2.5%p 확대된 17.4%를 기록함.

〈표 28〉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임직원	28,715 (14.9)	26,378 (14.0)	58,880 (25.8)	144,615 (18.0)	30,546 (15.4)	35,605 (17.4)
설계사	55,140 (28.7)	53,786 (28.4)	55,187 (24.2)	217,618 (27.1)	54,872 (27.7)	55,529 (27.1)
대리점	84,084 (43.8)	84,320 (44.6)	90,725 (39.7)	341,381 (42.5)	88,532 (44.8)	89,752 (43.7)
중개사	1,921 (1.0)	1,446 (0.8)	1,828 (0.8)	6,591 (0.8)	1,690 (0.9)	2,273 (1.1)
방카슈랑스	21,790 (11.3)	22,405 (11.9)	20,897 (9.2)	90,189 (11.2)	21,608 (10.9)	21,101 (10.3)
공동인수	509 (0.3)	496 (0.3)	773 (0.3)	2,095 (0.3)	561 (0.3)	895 (0.4)
전체	192,160 (100.0)	188,832 (100.0)	228,291 (100.0)	802,489 (100.0)	197,809 (100.0)	205,157 (100.0)

주: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7) 판매채널은 크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되며, 최근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등장하였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28〉과 같이 판매채널을 구분하여 원수보험료 비중을 제시함.

〈모집조직〉

■ 2016년 2/4분기 말 모든 모집조직의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210명 감소한 3만 2,301명을 기록함.
- 전속설계사가 605명 감소(-0.7%)한 8만 2,719명이며, 교차설계사 수는 1,031명 감소(-1.4%)한 7만 5,299명임.
- 전체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 수와 법인대리점 수가 모두 줄어들어 전분기대비 358개 감소(-1.2%)한 3만 293개를 나타냄.

〈표 29〉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임직원(명)	32,750	32,679	32,343	32,511	32,301
설계사(명)					
- 전속	80,400	80,269	81,148	83,324	82,719
- 교차	75,454	75,501	75,448	76,330	75,299
대리점(개)	32,511	31,847	30,850	30,651	30,293
- 개인	21,559	21,264	20,884	20,793	20,542
- 법인	10,952	10,583	9,966	9,858	9,751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자산〉

■ 2016년 2/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자산이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3.8% 증가한 241조 1,112억 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4.0% 늘어난 226.1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2.0% 증가한 15.1조 원을 나타냄.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2.8% 증가한 207조 2,016억 원을 나타냈으며,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11.0% 증가한 33조 9,095억 원을 나타냄.

○ 총부채는 책임준비금과 기타부채, 특별계정 부채가 각각 전분기대비 2.8%, 2.5%, 2.3% 증가함.

○ 총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각각 전분기대비 0.3%, 4.6%, 5.6%, 29.7% 증가함.

〈표 30〉 손해보험산업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총자산	금액	212.3	219.6	225.9	225.9	232.2	241.1
	증가율	2.1	3.5	2.9	12.8	2.8	3.8
일반계정 자산	금액	200.6	207.6	212.5	212.5	217.4	226.1
	증가율	2.3	3.5	2.3	11.2	2.3	4.0
특별계정 자산	금액	11.7	12.0	13.4	13.4	14.8	15.1
	증가율	-0.1	2.9	12.0	46.1	9.8	2.0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1〉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총자산	금액	212.3	219.6	225.9	225.9	232.2	241.1
	증가율	(2.1)	(3.5)	(2.9)	(12.8)	(2.8)	(3.8)
총부채	금액	184.2	190.3	196.6	196.6	201.6	207.2
	증가율	(2.7)	(3.4)	(3.3)	(13.4)	(2.5)	(2.8)
책임준비금	금액	160.1	165.0	169.0	169.0	173.2	178.1
	증가율	(3.6)	(3.1)	(2.4)	(12.5)	(2.5)	(2.8)
기타부채	금액	12.4	13.5	13.3	13.3	13.8	14.2
	증가율	(-6.4)	(8.7)	(-1.7)	(11.2)	(3.9)	(2.5)
특별계정부채	금액	9.3	9.4	11.1	11.1	14.6	14.9
	증가율	(1.3)	(1.1)	(17.9)	(19.9)	(31.2)	(2.3)
총자본	금액	28.1	29.3	29.3	29.3	30.5	33.9
	증가율	(-1.5)	(4.1)	(0.0)	(9.0)	(4.2)	(11.0)
자본금	금액	2.5	2.4	2.4	2.4	2.5	2.5
	증가율	(2.8)	(-4.8)	(2.0)	(2.6)	(2.1)	(0.3)
자본잉여금	금액	2.4	2.5	2.7	2.7	2.7	2.8
	증가율	(3.6)	(5.5)	(8.1)	(13.7)	(-1.3)	(4.6)
이익잉여금	금액	18.5	19.1	19.5	19.5	19.6	20.7
	증가율	(4.6)	(3.2)	(1.9)	(10.8)	(0.6)	(5.6)
자본조정	금액	-1.0	-1.0	-1.3	-1.3	-1.4	-1.4
	증가율	(1.7)	(-0.2)	(33.9)	(35.9)	(8.9)	(0.0)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5.7	6.3	6.0	6.0	7.2	9.3
	증가율	(-19.4)	(9.6)	(-4.6)	(8.5)	(20.4)	(29.7)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수익 · 총비용〉

■ 2016년 2/4분기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전년동기대비 31.7% 증가한 1조 1,238억 원 흑자를 기록함.

○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한 보험영업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41억 원 감소한 4,065억 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 이익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813억 원 감소한 1조 8,838억 원을 나타냄.

○ 한편,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B)은 전년 동기대비 28.9% 증가한 8,083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연 기준 당기순이익(C)는 전년동기대비 20.3% 증가한 2조 9,784억 원 흑자를 기록함.

〈표 32〉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17,740	17,941	18,301	71,562	18,139	18,507
	투자영업	2,213	3,013	1,640	9,040	2,624	2,168
	기타	419	382	1,424	2,741	452	413
	소계	20,372	21,336	21,365	83,343	21,215	21,088
총비용	보험영업 ²⁾	18,201	18,642	19,195	74,397	18,577	18,914
	투자영업	610	1,485	150	2,693	969	284
	기타	441	406	1,445	2,687	521	457
	소계	19,252	20,533	20,789	79,777	20,067	19,654
수지차	보험영업	-461	-701	-894	-2,835	-438	-407
	투자영업	1,603	1,528	1,490	6,347	1,655	1,884
	기타	-22	-24	-21	54	-68	-44
	소계	1,120	803	575	3,565	1,148	1,434
법인세		267	188	172	872	241	310
당기순이익(A) ³⁾		853	615	404	2,694	907	1,124
		(-1.1)	(4.7)	(30.6)	(15.6)	(10.4)	(31.7)
당기순이익(B) ⁴⁾		627	484	189	1,910	681	808
		(12.4)	(7.3)	(2.2)	(15.0)	(11.5)	(28.9)
연 기준		2,476	2,295	1,910	1,910	2,724	2,978
당기순이익(C) ⁵⁾		(20.7)	(16.6)	(15.0)	(15.0)	(11.5)	(20.3)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함.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표에 있는 수지차는 이에 해당함.

4)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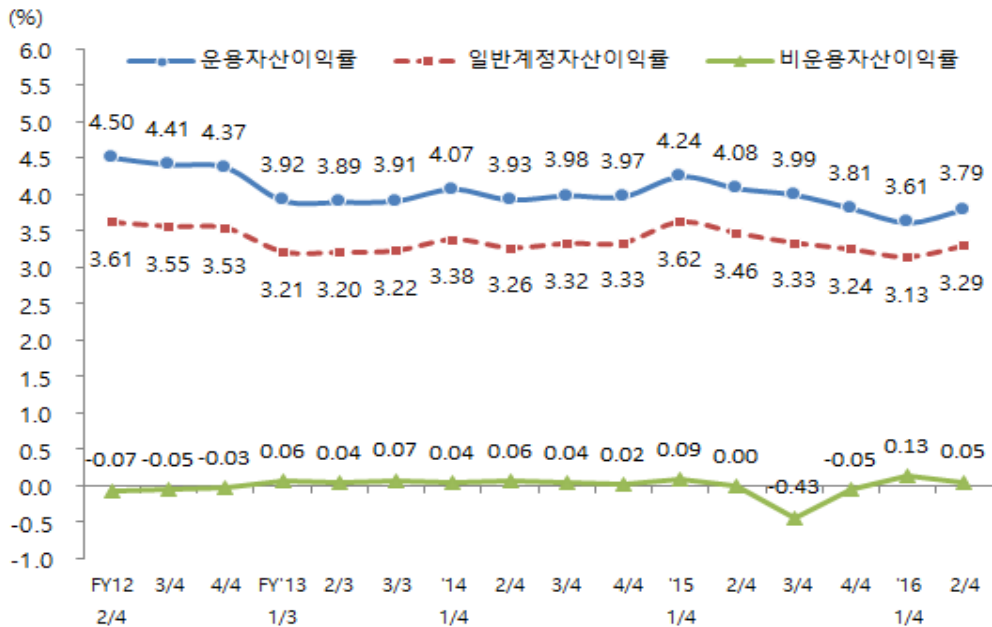
5)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9%p 하락한 3.79%를 기록함.
- 현금과 예금이 0.63%p 하락한 2.30%를 기록하였으며, 유가증권도 0.48%p 하락한 3.78%를 기록함.
- 유가증권 구성항목 중 당기손익인식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이익률이 각각 1.57%p, 0.55%p 하락하였고, 만기보유증권 이익률은 0.05%p 상승함.
- 대출채권 이익률은 0.27%p 하락한 4.04%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2.94%p 상승한 4.02%를 기록함.

〈그림 6〉 자산운용 이익률^{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이익률과 비운용자산이익률을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2/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7.47%, 대출채권 23.47%, 현금과 예금 3.02%, 부동산 2.91% 순으로 나타남.²⁸⁾

○ 현금과 예금, 부동산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06%p, 0.30%p 하락하였으며,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비중은 각각 1.65%p, 1.45%p 상승함.

〈표 33〉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0	3.46	100.00	3.33	100.00	3.24	100.00	3.13	100.00	3.29
운용자산 계	85.14	4.08	85.53	3.99	86.25	3.81	86.32	3.61	86.87	3.79
현금과 예금	4.08	2.93	4.25	3.77	4.27	2.96	3.39	1.97	3.02	2.30
유가증권	55.82	4.26	55.86	4.06	55.79	3.87	56.48	3.59	57.47	3.78
○ 당기손익인식증권	3.62	3.54	3.82	2.38	3.60	2.00	2.97	2.20	3.36	1.98
- 주식	0.10	25.63	0.08	8.05	0.05	2.91	0.05	4.58	0.04	-1.73
- 채권 등	1.88	2.98	1.85	2.43	1.66	2.04	1.53	3.20	1.50	3.26
- 수익증권	1.64	2.29	1.89	1.98	1.89	1.85	1.40	1.45	1.82	1.13
○ 매도가능증권	43.68	4.49	43.57	4.30	43.95	4.22	45.09	3.80	48.97	3.94
- 주식	3.07	4.44	2.71	1.41	2.73	1.03	2.75	7.15	2.51	10.48
- 채권 등	34.77	4.22	35.03	4.27	35.05	4.27	35.98	3.67	39.90	3.57
- 수익증권	5.84	6.20	5.84	6.03	6.17	5.62	6.37	3.11	6.56	3.49
○ 만기보유증권	6.74	3.79	6.76	3.96	6.80	3.57	7.01	3.10	3.98	3.84
- 채권 등	6.74	3.79	6.76	3.96	6.80	3.57	7.01	3.10	3.98	3.84
- 수익증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78	2.02	1.72	2.34	1.43	0.20	1.41	2.38	1.15	2.51
대출채권	22.02	4.31	22.30	4.31	23.13	4.22	23.49	3.98	23.47	4.04
부동산	3.21	1.09	3.12	1.05	3.06	1.02	2.97	3.29	2.91	4.02
비운용자산	14.86	0.00	14.47	-0.43	13.75	-0.05	13.68	0.13	13.13	0.05
일반계정자산 규모	2,006,330		2,076,277		2,124,938		2,174,195		2,260,595	
일반계정자산 비중	(94.95)		(94.53)		(94.04)		(93.64)		(93.76)	
총자산 규모	2,122,961		2,196,330		2,259,351		2,321,807		2,411,112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이익률에 해당하는 이익은 분기별 누계실적 기준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8)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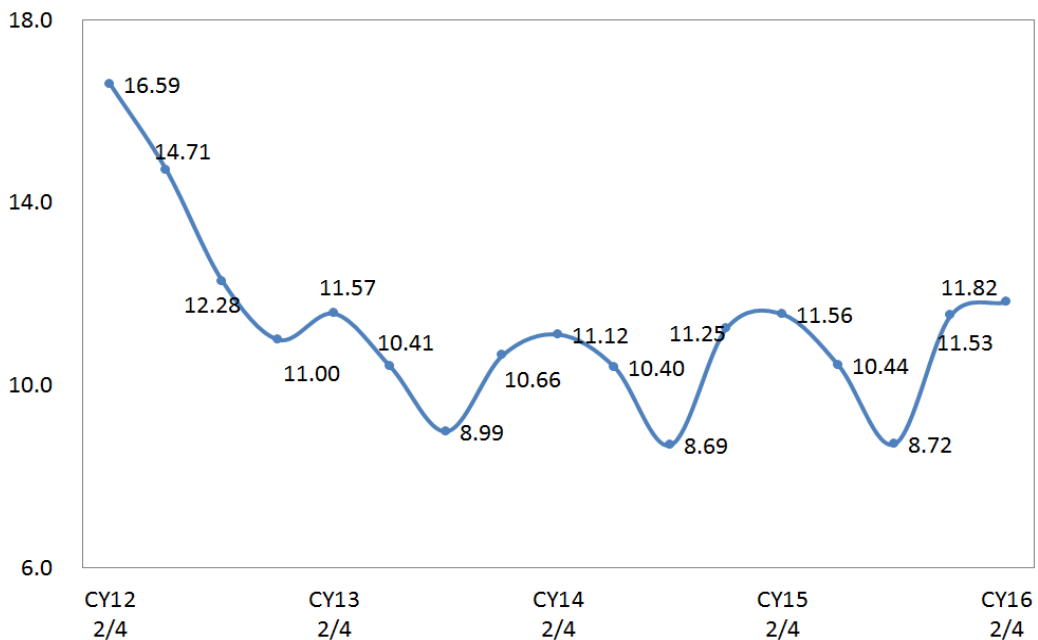
〈자본이익률(ROE)²⁹⁾〉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6%p 상승한 11.82%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총자본은 전년동기대비 11.0% 증가하였으며, 누적 당기순이익(C)은 전년 동기대비 20.3% 증가함.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자본이익률은 대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 대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72%p, 0.84%p 하락한 9.26%와 23.32%를 기록함.
 ○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2.12%p와 20.42%p 개선된 21.30%와 14.72%를 기록함.

29)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17개 회사임.

〈표 34〉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대형사	11.98	10.59	8.98	11.46	9.26
중·소형사	9.18	9.13	7.95	9.73	21.30
외국사	24.16	23.66	19.69	21.61	23.32
전업사	-5.70	-4.70	-17.70	20.87	14.72
전체	11.56	10.44	8.72	11.53	11.82

주: 1)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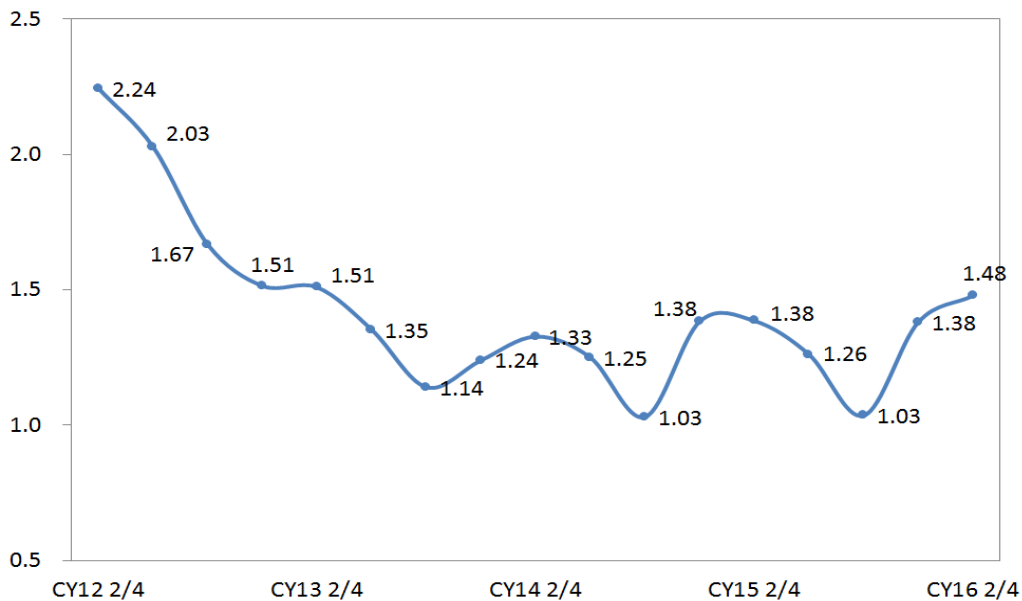
〈자산이익률(ROA)³⁰⁾〉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전체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0%p 상승한 1.48%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으며, 누적 당기순이익(C)은 전년동기대비 20.3% 증가함.

〈그림 8〉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자산이익률의 경우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사와 외국사, 전업사가 모두 상승함.

○ 대형사는 전년동기대비 0.32%p 하락한 1.25%를 기록함.

○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14%p, 0.32%p, 4.39%p 상승한 1.84%, 10.35%, 3.34%를 기록함.

30)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A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17개 회사임.

〈표 35〉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대형사	1.57	1.40	1.16	1.49	1.25
중·소형사	0.70	0.72	0.62	0.78	1.84
외국사	10.03	9.96	8.22	9.51	10.35
전업사	-1.05	-0.86	-3.09	4.56	3.34
전체	1.38	1.26	1.03	1.38	1.48

주: 1)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년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Ⅲ. 해외보험 동향

- 해외 주요국의 생명보험시장은 각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1/4분기 미국 생명보험시장은 종신보험의 11.0% 성장에 힘입어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4.0% 성장하였으나, 변액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가 14.0% 감소하면서 그 증가세가 둔화됨.
 - 개인연금 신규보험료의 경우 변액연금은 17.9% 감소하고 정액연금은 46.8% 증가하여 전체 8.3% 증가함.
 - 영국은 2016년 2/4분기 각 보험종목의 신규보험료¹⁾가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4.7% 성장함.
 - 보장성보험과 투자 및 저축성 보험 신규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6.9%, 7.2% 증가함.
 - 연금부문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함.
 - 일본의 경우 FY2016 1/4분기 신규계약액²⁾은 개인연금보험이 증가하였으나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2% 줄어듦.
 - 개인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으나,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8%, 30.8% 감소함.
 - 2016년 2/4분기 중국 인보험³⁾ 수입보험료는 건강보험 증가세의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44.7% 성장함.

1)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2) 일본 보험산업은 일본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라 신규계약액을 기준으로 그 성장성을 살펴보고 있음.
3)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 해외 주요국의 손해보험시장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16년 1/4분기 미국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2% 성장함.
 - 한편, 총보험영업이익이 큰 폭(47.0%)으로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은 26.6% 감소함.
 - 일본의 FY2016 1/4분기 원수보험료는 화재, 해상, 운송, 상해보험의 원수보험료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8% 감소함.
 - 2016년 2/4분기 중국 손해보험 수입보험료⁴⁾는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였으나 성장세가 둔화됨.

1. 미국⁵⁾

가. 생명보험

- 2016년 1/4분기 생명보험시장 신규보험료 규모⁶⁾는 종신보험과 유니버설보험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 성장함(〈표 1〉 참조).
- 유니버설보험⁷⁾은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⁸⁾ 판매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환경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 성장함.
 - 변액유니버설보험⁹⁾은 저금리 환경 및 주식 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함.
 - 정기보험¹⁰⁾과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 11% 증가함.

4) 중국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가 아닌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성장성을 살펴봄.

5)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6) 미국 보험시장 성장은 신규 연납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7) 해약환급금으로부터 사업비를 공제하고, 사망률과 현재 이율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 따라 보험료가 유연한 생명보험임.

8) 인덱스 지수와 연결된 유니버설보험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증가하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하여도 최저 보증금은 보증되는 보험임.

9)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자 성과에 따라 해약환급금 규모가 변경되는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및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보험임.

■ 2016년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 보험은 전분기대비 소폭 축소되었고, 정기보험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종신보험이 소폭 확대됨.

- 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버설보험의 비중은 37%임.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분기대비 1%p 하락하여 6%의 비중을 차지함.
- 정기보험은 21%의 비중을 차지하여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종신보험은 2%p 상승한 36%의 비중을 차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18	-1	38	7	13	11	-1	7	38	1	37
변액유니버설	7	17	7	21	-15	2	-11	-3	7	-14	6
정기	1	-1	22	2	1	2	1	2	21	3	21
종신	5	3	33	9	12	9	9	9	34	11	36
계	9	1	100	8	8	8	1	6	100	4	100
연납화 보험료	2,907	10,178		2,460	2,742	2,584	2,919	10,687		2,537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2016, 4),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6년 1/4분기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은 감소하고, 정액연금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589억 달러임(〈표 2〉 참고).

- 변액연금¹¹⁾은 전년동기대비 17.9% 감소하여 266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정액연금¹²⁾은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46.8% 증가하여 323억 달러를 기록함.

10) 특정 연령까지 혹은 특정 기간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임.

11) 변액연금 상품을 일부라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을 일컫음.

12) 최저보장 이율이 보장되는 독립상품으로 거치연금(deferred annuity),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 구조적 지급 연금(structured settlements annuity) 등이 있음.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변액연금	보험료	34.2	140.1	32.4	36.0	32.9	31.7	133.0	26.6
	증가율	-6.0	-3.6	-5.3	-0.6	-7.3	-7.3	-5.1	-17.9
	비중	58.9	59.4	59.6	59.8	54.3	51.6	56.2	45.2
정액연금	보험료	23.9	95.8	22.0	24.2	37.7	29.7	103.6	32.3
	증가율	-4.8	13.5	-8.3	-5.8	63.9	22.7	6.9	46.8
	비중	41.1	40.6	40.4	40.2	62.2	48.4	43.8	54.8
합계	보험료	58.1	235.9	54.4	60.2	60.6	61.4	236.6	58.9
	증가율	-5.5	2.7	-6.5	-2.7	3.6	5.1	-0.2	8.3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6, 3),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6년 1/4분기 소득보상보험¹³⁾ 신규보험료는 Non-cancellable¹⁴⁾은 증가하였으나 Guaranteed Renewable¹⁵⁾이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1억 3,090만 달러를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은 전년동기대비 13.2% 감소한 5,540만 달러임.

○ Non-cancellable은 7,55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4% 성장함.

13)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불능이 되었을 경우 소득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임.

1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15)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표 3〉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계약 건수	Guaranteed Renewable	전수	66.6	298.7	108.6	79.6	74.7	115.3	378.2	93.9
		증가율	-9.5	-3.8	6.7	26.6	10.9	73.0	26.6	-13.6
		구성비	60.3	65.8	76.3	69.0	60.4	70.1	69.3	70.6
	Non- cancellable	전수	43.9	155.1	33.7	35.7	49.0	49.1	167.6	39.2
		증가율	1.9	0.5	3.8	1.2	12.7	12.0	8.0	16.2
		구성비	39.7	34.2	23.7	31.0	39.6	29.9	30.7	29.4
	전체	전수	110.5	453.9	142.4	115.3	123.7	164.4	545.8	133.1
		증가율	-5.3	-2.4	6.0	17.5	11.6	48.8	-2.4	-6.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43.9	190.0	63.8	53.0	41.8	69.1	227.7	55.4
		증가율	-11.9	-5.6	5.8	28.2	-6.0	57.5	-5.6	-13.2
		구성비	32.9	37.6	48.7	406	29.9	42.7	37.6	42.3
	Non- cancellable	보험료	89.4	315.8	67.2	77.5	97.9	92.7	335.3	75.5
		증가율	3.8	-0.7	1.8	4.3	13.8	3.7	-0.7	12.4
		구성비	67.1	62.4	51.3	59.4	70.1	57.3	62.4	57.7
	전체	보험료	133.2	505.8	131.0	130.5	139.7	161.8	563.0	130.9
		증가율	-2.0	-2.6	3.7	12.9	7.0	21.5	-2.6	-0.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6, 3),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ales.

라. 손해보험

■ 2016년 1/4분기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1,30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발생손해액은 8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함.

○ 원수손해율은 67.0%로 전년동기대비 2.0%p 상승함.

■ 손해보험산업의 2016년 1/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6.6% 감소한 133억 달러임.

○ 총보험영업이익은 2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7.0%가 감소함.

○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이 모두 하락하며 전년동기대비 16.4% 줄어든 약 1132억 달러임.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한 109억 달러임.

- 실현자본이익은 2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3% 감소함.

■ 2016년 1/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5.7%에서 약 1.8%p 상승한 97.5%로 악화됨.

■ 2015년 1/4분기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10.8%에서 2.9%p 하락한 7.9%를 나타냄.

〈표 4〉 미국 손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금액	119,603	497,025	126,101	130,586	135,994	121,282	513,963	130,075
	증가율	4.8	4.2	3.8	4.4	4.1	1.3	3.4	3.2
발생손해액	금액	81,628	334,955	81,928	89,399	88,701	90,204	350,232	87,090
	증가율	2.7	6.3	1.8	2.0	4.3	10.4	4.6	6.3
원수손해율		68.2	67.4	65.0	68.5	65.2	74.4	68.1	67.0
보험영업이익	금액	9,294	14,626	4,787	-415	4,021	2,832	11,225	2,917
	증가율	49.6	-17.7	58.4	-77.4	-4.3	-69.4	-23.3	-39.1
계약자 배당금	금액	1,264	2,415	723	258	271	1,252	2,504	753
	증가율	1.0	-3.9	8.2	-2.6	5.9	1.0	3.7	4.1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8,030	12,212	4,085	-673	3,750	1,580	8,742	2,164
	증가율	61.9	-19.9	73.5	-68.0	-5.0	-80.3	-28.4	-47.0
투자영업이익	금액	11,861	46,361	11,658	11,734	11,457	12,379	47,228	10,893
	증가율	-9.2	-2.1	4.4	-0.7	0.2	4.0	1.9	-6.6
실현자본이익	금액	1,301	10,280	4,687	3,500	680	545	9,412	2,284
	증가율	-75.7	-9.6	59.6	-17.7	-57.7	-62.8	-8.4	-51.3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3,162	56,641	16,344	15,234	12,137	12,924	56,639	13,177
	증가율	-28.6	-3.5	15.9	-5.2	-7.0	-3.4	0.0	-19.4
세전영업이익 ²⁾	금액	19,017	55,910	15,560	11,965	15,592	14,196	57,313	13,475
	증가율	2.2	-12.7	13.0	17.9	21.0	-25.6	2.5	-13.4
당기순이익	금액	17,849	55,870	18,138	12,834	13,062	12,588	56,622	13,313
	증가율	-13.8	-11.9	30.9	5.8	10.5	-30.3	1.3	-26.6
자기자본 (Surplus) ³⁾	금액	674,714	675,234	671,900	672,439	663,868	673,686	673,686	676,256
	증가율	3.3	3.3	1.6	0.1	-1.6	-0.2	-0.2	0.6
지급준비금	금액	575,607	575,824	575,577	579,099	580,974	583,069	583,069	586,036
	증가율	0.4	0.4	0.3	0.1	0.3	1.3	1.3	1.8
자기자본이익률 ⁴⁾		10.6	8.4	10.8	7.6	7.8	7.5	8.4	7.9
합산비율		94.9	97.0	95.7	99.4	95.7	100.5	97.8	97.5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3)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보험계약자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을 의미함.

4) 자기자본(surplus)에 대한 이익률로 rate of return on average surplus로 표기함.

자료: ISO(2016, 7),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First-Quarter 2016.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의료공급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건강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산업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3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2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9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¹⁶⁾

가. 생명보험¹⁷⁾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 2016년 2/4분기 생명보험 보험료 규모는 신규보험료¹⁸⁾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한 252억 3,180만 파운드임.
- 2016년 2/4분기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한 3억 2,350만 파운드임.
- 2016년 2/4분기 투자 및 저축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21억 7,180만 파운드임.
- 2016년 2/4분기 연금 부문¹⁹⁾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한 198억 5,970만 파운드임.
 - 순수개인형연금(Individual Pension)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0.1% 감소하여 29억 8,860만 파운드임.
 - 단체개인형연금(Work-based Pension)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한 24억 5,030만 파운드임.
 -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6.1% 증가한 144억 2,090만 파운드임.

16)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1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7) 영국 손해보험은 연도별 자료만 있어, 분기별로는 생략됨.

18)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19) 연금부분은 개인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되는데, 개인연금계좌는 근로자와 연금사업자 간 개인계약(personal contract-based)으로, 순수개인형(Individual Pension)과 단체개인형(Work-based Pension)으로 구분됨. 순수개인형연금은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등으로 구분하며, 단체개인형연금은 보험료를 직장이 일정 부분 보조하는 형태로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Group SIPP 등으로 구분함.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은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신탁에 근거한 연금으로,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TIP(Trustee Investment Plan), Bulk Buyout 등으로 구분함.

■ 2016년 2/4분기 퇴직소득보험²⁰⁾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5.4% 증가한 28억 7,680만 파운드임.

〈표 5〉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상품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보장성보험 (Protection)	금액	302.6	286.5	289.2	1,172.2	295.9	323.5
	증가율	4.2	-2.7	3.1	-0.6	0.7	6.9
	구성비	1.4	1.4	1.4	1.5	2.0	1.3
투자 및 저축성 상품 (Investments & Saving)	금액	2,026.8	2,105.4	2,164.3	8,169.0	2,104.9	2,171.8
	증가율	3.9	-8.3	1.5	-2.1	12.4	7.2
	구성비	9.2	10.5	10.4	10.6	13.9	8.6
투자형상품 (Investment)	금액	1,144.3	1,225.4	1,203.7	4,691.9	1,238.1	1,289.1
	증가율	6.6	4.7	-6.9	1.6	10.7	12.6
	구성비	5.2	6.1	5.8	6.1	8.2	5.1
역외영업 (Offshore)	금액	876.7	872.9	953.9	3,451.3	859.8	876.0
	증가율	0.5	-22.0	14.2	-7.0	15.0	-0.1
	구성비	4.0	4.3	4.6	4.5	5.7	3.5
연금 상품 (Pension)	금액	17,365.6	14,961.1	15,895.1	58,448.8	10,327.8	19,859.7
	증가율	33.7	55.5	2.6	15.5	1.0	14.4
	구성비	79.0	74.5	76.6	75.8	68.1	78.7
순수개인형 (Individual)	금액	3,741.2	3,560.4	3,475.1	13,971.4	3,207.6	2,988.6
	증가율	81.6	75.6	66.3	71.1	0.4	-20.1
	구성비	17.0	17.7	16.7	18.1	21.2	11.8
단체개인형 (Work-Based)	금액	2,185.1	2,050.4	3,333.8	9,520.1	2,409.6	2,450.3
	증가율	-16.3	1.1	45.3	0.9	23.5	12.1
	구성비	9.9	10.2	16.1	12.4	15.9	9.7
퇴직연금 (Trust-based)	금액	11,439.3	9,350.3	9,086.2	34,957.3	4,710.6	14,420.9
	증가율	37.6	68.0	-18.2	5.9	-7.3	26.1
	구성비	52.0	46.6	43.8	45.4	31.1	57.2
퇴직소득보험 (Retirement Income)	금액	2,294.4	2,724.9	2,415.6	9,271.2	2,426.0	2,876.8
	증가율	-10.4	16.9	23.6	-6.3	32.1	25.4
	구성비	10.4	13.6	11.6	12.0	16.0	11.4
전체	금액	21,989.4	20,077.8	20,763.7	77,060.9	15,154.6	25,231.8
	증가율	23.6	38.1	4.6	10.0	6.5	14.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20)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수령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y),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6년 2/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자문(independent advice),²¹⁾ 無자문(non-advised),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²²⁾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정기납 판매 중 독립자문 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9%p 증가한 68.9%를 기록하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계좌(87.8%), 보장성보험(70.8%), 퇴직연금(25.6%), 투자 및 저축보험(19.4%) 순임.
- 제한적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1.2%p 감소한 8.2%를 기록하였으며,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16.2%), 퇴직연금(12.7%), 투자 및 저축보험(10.3%), 퇴직연금계좌(4.3%) 순으로 나타남.
- 無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9.3%p 증가한 22.9%로,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70.3%), 퇴직연금(61.7%), 보장성보험(13.0%), 퇴직연금계좌(7.9%) 순임.

■ 2016년 2/4분기 일시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독립자문 채널을 통한 신규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6.8%p 증가한 77.9%임.
 -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의 독립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비중이 92.9%로 가장 높으며, 퇴직연금계좌(85.7%), 퇴직연금(81.2%), 투자 및 저축보험(79.4%), 퇴직소득보험(49.4%) 순임.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 채널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5.0%p 감소한 8.5%임.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의 제한적 자문 채널 모집 비중이 18.7%로 가장 높으며, 퇴직소득보험(11.5%), 퇴직연금(6.9%), 퇴직연금계좌(6.6%), 보장성보험(2.0%) 순임.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13.6%로 전년동기대비 11.8%p 감소함.

21) 독립적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상품공급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특정 시장의 전체 상품을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22)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은 복수의 상품공급업자 상품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과 퇴직소득보험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비중이 각각 11.9% 39.1%로 나타남.
- 투자 및 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표 6〉 2016년 2/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19.4	79.4	10.3	18.7	70.3	1.9
퇴직연금계좌	87.8	85.7	4.3	6.6	7.9	7.8
퇴직연금	25.6	81.2	12.7	6.9	61.7	11.9
보장성보험	70.8	92.9	16.2	2.0	13.0	5.1
퇴직소득보험	-	49.4	-	11.5	-	39.1
전체 ³⁾	68.9	77.9	8.2	8.5	22.9	13.6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비중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채널 파악이 안된 경우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6년 2/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보험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18.9% 감소한 1억 8,720만 파운드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9.0% 감소한 1,460만 파운드로 전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의 약 7.8% 가량을 차지함.

- 이는 보장성보험 판매가 30.7% 감소한 것에 기인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일시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7.9% 감소한 1억 7,260만 파운드임.

- 이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일시납 보험상품 판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및 저축보험이 10.7%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역외영업 신규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표 7〉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5				2016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1/4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0.2 (-5.2)	0.1 (500.0)	0.2 (56.0)	0.6 (-1.8)	0.1 (0.6)	0.1 (-2.2)	117.9 (2.4)	112.3 (2.7)	132.4 (4.7)	107.2 (-14.0)	469.8 (-1.2)	128.8 (9.2)	130.6 (10.7)	
퇴직연금계좌	4.0 (-49.6)	5.2 (-16.8)	4.3 (-37.1)	17.2 (-47.5)	4.2 (9.1)	3.2 (-15.8)	16.8 (-40.7)	17.2 (-46.6)	10.9 (-41.0)	12.1 (-29.4)	56.9 (-40.7)	26.0 (55.0)	22.6 (34.7)	
퇴직연금	0.0 (-57.1)	0.0 (100.0)	0.0 (-)	0.4 (-43.6)	0.0 (100.0)	0.0 (100.0)	0.0 (100.0)	2.6 (-93.6)	0.0 (100.0)	0.0 (100.0)	2.6 (-97.5)	0.0 (-99.2)	0.0 (100.0)	
역외영업	0.0 (-32.1)	0.0 (-31.0)	0.0 (15.8)	0.2 (-17.8)	0.1 (39.4)	0.0 (14.9)	62.6 (-33.6)	91.1 (19.0)	72.3 (2.5)	75.1 (4.1)	301.2 (-3.9)	0.0 (100.0)	0.0 (100.0)	
보장성보험	11.6 (-51.1)	12.4 (-44.4)	12.1 (-29.0)	52.2 (-41.9)	11.6 (-28.0)	11.2 (-30.7)	3.8 (-13.9)	3.6 (-38.3)	4.7 (15.8)	3.8 (8.8)	15.9 (-10.8)	3.5 (-5.6)	2.3 (-38.3)	
퇴직소득보험 ¹⁾	- -	- -	- -	- -	- -	- -	9.1 (-71.8)	6.8 (-67.3)	6.6 (-70.4)	8.4 (-46.0)	30.8 (-66.0)	8.3 (-8.3)	17.1 (88.3)	
전체	15.8 (-50.4)	17.7 (-38.1)	16.5 (-30.8)	70.5 (-42.8)	16.0 (-22.2)	14.6 (-29.0)	210.2 (-36.1)	233.6 (-18.1)	226.8 (-8.2)	206.6 (-12.7)	877.2 (-20.1)	166.6 (-20.7)	172.6 (-17.9)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합침.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	순수개인형연금
Work-based Pension	단체개인형연금
Trust-based Pension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²³⁾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 FY2016년 1/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10조 9,948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함.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가 모두 감소함.

■ FY2016년 1/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4.3% 감소한 8조 2,151억 엔임.

○ 손해보험은 늘어났지만 생명보험이 크게 줄어들었음.

〈표 8〉 일본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연간	FY2016
		1/4	2/4	3/4	4/4		1/4
수입보험료	금액	115,112	119,632	110,667	122,707	468,118	109,948
	증가율 ¹⁾	2.2	4.6	-0.4	0.3	1.7	-4.5
생명보험	금액	91,745	96,115	88,596	101,025	377,481	86,757
	증가율	1.8	3.5	-0.3	0.7	1.4	-5.4
손해보험 ²⁾	금액	23,367	23,517	22,071	21,682	90,637	23,191
	증가율	3.8	9.6	-0.9	-1.3	2.7	-0.8
지급보험금	금액	95,906	84,810	86,564	83,223	350,503	82,151
	증가율	6.5	-4.9	-11.3	-15.2	-6.5	-14.3
생명보험	금액	85,222	73,681	73,834	71,583	304,320	68,361
	증가율	9.4	-5.4	-14.2	-17.1	-7.3	-19.8
손해보험	금액	10,684	11,129	12,730	11,640	46,183	13,790
	증가율	-12.1	-1.3	10.8	-1.0	-1.1	29.1

주: 1) 전년동기대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

23)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부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나. 생명보험²⁴⁾

〈신규계약액〉

■ FY2016 1/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개인연금보험이 증가하였지만,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2% 하락한 20조 539억 엔을 기록함.

- 개인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한 17조 2,701억 엔을 기록함.
 - 사망보험의 경우 정기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지만,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1.4%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은 전년동기대비 31.5% 증가하였지만 기타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0.0% 감소함.
 - 생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한 4,114억 엔으로 집계됨.
- 개인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6.1% 늘어난 2조 1,350억 엔으로 나타남.
 - 정액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하였지만 변액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7.1% 감소함.
- 단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0.8% 감소한 6,488억 엔을 기록함.
 -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²⁵⁾ 포함)은 전년동기대비 44.5% 감소하였지만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4.8% 증가함.

24)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계약종목에 따라 분기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종목별 생명보험 변화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 신규계약액을 대상으로 분석함.

25)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5					FY2016
		1/4	2/4	3/4	4/4	연간	1/4
개인	금액	177,605	183,457	183,689	187,809	732,560	172,701
	증가율	7.4	5.6	3.2	3.2	4.8	-2.8
	구성비	85.8	88.2	87.6	81.7	85.7	86.1
	사망	금액	147,699	153,820	152,514	609,932	139,443
		증가율	5.8	4.4	-0.1	-0.3	2.4
		구성비	71.3	74.0	72.7	67.8	69.5
	정기보험	금액	74,558	80,049	81,016	318,809	77,190
		증가율	3.8	2.1	1.1	3.2	3.5
	종신보험	금액	37,635	37,475	37,408	155,382	33,328
		증가율	10.9	2.1	-4.2	1.1	-11.4
	생사혼합	금액	26,500	25,616	26,803	106,109	29,144
		증가율	27.5	18.5	27.6	27.7	25.3
		구성비	12.8	12.3	12.8	11.8	12.4
	양로보험 ²⁾	금액	12,120	12,128	12,659	49,886	15,944
		증가율	3.7	-3.1	13.7	13.4	6.6
	기타	금액	12,345	11,475	12,125	48,138	11,105
		증가율	53.1	42.7	40.6	44.3	45.1
	생존	금액	3,405	4,021	4,372	16,519	4,114
		증가율	-32.5	-15.4	3.5	6.9	-10.4
		구성비	1.6	1.9	2.1	2.1	1.9
개인연금	금액	20,116	19,085	20,046	24,303	83,550	21,350
		증가율	-5.7	-11.8	-8.5	12.2	-3.5
		구성비	9.7	9.2	9.6	10.6	9.8
	정액연금	금액	16,063	15,185	16,741	21,659	69,648
		증가율	-10.8	-11.1	-5.9	26.3	-0.5
	변액연금	금액	4,054	3,900	3,304	2,643	13,902
		증가율	21.8	-14.6	-20.1	-41.3	-15.9
							-47.1
단체보험	금액	9,383	5,441	6,026	17,886	38,736	6,488
		증가율	-9.6	1.1	33.1	73.2	26.6
		구성비	4.5	2.6	2.9	7.8	4.5
	단체정기 ³⁾	금액	7,530	3,954	4,512	5,456	21,451
		증가율	72.8	-9.3	35.7	-38.3	2.7
	단체산용생명	금액	1,853	1,487	1,514	12,431	17,284
		증가율	-69.2	45.8	25.9	739.4	77.8
							24.8
합계	금액	207,104	207,983	209,761	229,998	854,845	200,539
	증가율	5.1	3.6	2.6	7.5	4.7	-3.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대비 기준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지급률〉

■ FY2016 1/4분기 생명보험 지급률은 78.8%로 전분기보다 7.9%p 상승함.

○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한 8조 6,757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 대비 19.8% 감소한 6조 8,361억 엔을 나타냄.

○ 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1조 1,528억 엔으로 나타남.

〈표 10〉 일본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4	FY2015				FY2016
		4/4	1/4	2/4	3/4	4/4	1/4
수입보험료	금액	100,350	91,745	96,115	88,596	101,025	86,757
	증가율 ¹⁾	12.2	1.8	3.5	-0.3	0.7	-5.4
지급보험금	금액	86,395	85,222	73,681	73,834	71,583	68,361
	증가율	6.4	9.4	-5.4	-14.2	-17.1	-19.8
지급률 ²⁾		86.1	92.9	76.7	83.3	70.9	78.8
사업비		11,762	11,217	11,940	11,554	12,352	11,528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16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0.1% 감소한 366조 9,641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의 자산 규모는 전분기보다 각각 1.8%, 56.7% 증가함.

○ 반면, 매입금전채권, 금전신탁, 대출금, 부동산의 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6.0%, 0.6%, 1.1%, 3.8% 감소함.

○ 유가증권의 경우 지방채와 회사채를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의 감소로 전분기대비 1.2% 감소한 296조 9,991억 엔을 나타냄.

- 지방채와 회사채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0.2%, 0.3% 증가하였음.

- 국채, 주식 및 외화증권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0.2%, 6.1%, 2.5% 감소함.

〈표 11〉 일본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엔, %)

구분 ^{1),2)}	FY2015								FY2016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43,772	-21.9	51,574	17.8	46,986	-8.9	74,584	58.7	75,944	1.8
단기자금	29,610	-19.4	42,912	44.9	46,569	8.5	12,809	-72.5	20,068	56.7
매입금전채권	27,724	-0.7	29,798	7.5	25,342	-15.0	24,572	-3.0	23,100	-6.0
금전신탁	35,572	6.7	35,956	1.1	37,376	3.9	37,013	-1.0	36,780	-0.6
유가증권	3,027,827	1.1	2,978,104	-1.6	3,001,722	0.8	3,005,235	0.1	2,969,991	-1.2
- 국채	1,491,066	0.2	1,486,502	-0.3	1,475,890	-0.7	1,485,685	0.7	1,483,404	-0.2
- 지방채	137,297	-1.0	136,997	-0.2	135,144	-1.4	135,179	0.0	135,448	0.2
- 회사채	244,657	-1.6	248,621	1.6	249,038	0.2	253,635	1.8	254,478	0.3
- 주식	237,381	4.6	208,875	-12.0	225,713	8.1	198,130	-12.2	186,051	-6.1
- 외화증권	762,245	4.0	751,731	-1.4	766,972	2.0	786,532	2.6	766,658	-2.5
대출금	365,089	-0.8	359,140	-1.6	357,548	-0.4	349,869	-2.1	346,025	-1.1
부동산	62,566	0.2	62,538	0.0	62,361	-0.3	61,571	-1.3	59,251	-3.8
운용자산 ³⁾	3,623,009	0.4	3,594,161	-0.8	3,612,679	0.5	3,599,269	-0.4	3,568,750	-0.8
비운용자산	63,674	1.8	63,934	0.4	63,362	-0.9	72,410	14.3	100,891	39.3
총자산 ⁴⁾	3,686,683	0.4	3,658,095	-0.8	3,676,041	0.5	3,671,679	-0.1	3,669,641	-0.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16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1.3% 감소한 3,421억 엔을 나타냄.

■ 자본이익률은 전분기대비 3.4%p 상승한 6.2%를 기록함.

○ 자본은 전분기대비 5.3% 감소한 22조 1,588억 엔을 기록함.

■ 총자산이익률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0.4%를 기록함.

○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0.1% 감소한 366조 9,641억 엔을 기록함.

〈표 12〉 일본 생명보험 실적

(단위: 억 엔, %)

구분		FY2014	FY2015				FY2016
		4/4	1/4	2/4	3/4	4/4	1/4
당기순이익	금액	3,872	4,978	3,393	3,388	1,625	3,421
	증가율 ¹⁾	5.8	5.9	-22.5	42.0	-58.0	-31.3
자본	금액	261,270	255,639	231,494	243,093	233,989	221,588
	증가율 ²⁾	7.9	-2.2	-9.4	5.0	-3.7	-5.3
총자산	금액	3,672,552	3,686,683	3,658,094	3,676,042	3,671,679	3,669,641
	증가율 ²⁾	0.3	0.4	-0.8	0.5	-0.1	-0.1
자본이익률 ³⁾		5.9	7.8	5.9	5.6	2.8	6.2
총자산이익률 ³⁾		0.4	0.5	0.4	0.4	0.2	0.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연율화 수치.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FY2016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8% 감소한 2조 3,191억 엔으로 집계됨.

○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0%, 11.2%, 0.3% 감소한 3,437억 엔, 535억 엔, 171억 엔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1조 344억 엔으로 집계되었지만 자동차배상책임 보험은 3.8% 감소한 2,595억 엔으로 집계됨.

○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한 2,802억 엔을 나타냈지만 특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한 3,306억 엔을 기록함.

〈표 13〉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2),3)}		FY2015					FY2016
		1/4	2/4	3/4	4/4	연간	1/4
화재	보험료	3,777	5,038	3,712	3,386	15,913	3,437
	증가율	4.2	44.7	-10.3	-13.2	5.1	-9.0
	구성비	16.2	21.4	16.8	15.6	17.6	14.8
해상	보험료	602	541	526	515	2,184	535
	증가율	5.8	0.4	-3.5	-10.1	-1.9	-11.2
	구성비	2.6	2.3	2.4	2.4	2.4	2.3
운송	보험료	172	155	161	166	654	171
	증가율	0.0	2.0	2.5	3.8	1.9	-0.3
	구성비	0.7	0.7	0.7	0.8	0.7	0.7
자동차	보험료	10,141	9,767	9,989	10,015	39,912	10,344
	증가율	4.1	3.7	2.8	2.5	3.3	2.0
	구성비	43.4	41.5	45.3	46.2	44.0	44.6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698	2,568	2,820	2,483	10,210	2,595
	증가율	4.5	3.3	11.2	-7.0	-0.8	-3.8
	구성비	11.5	10.9	12.8	11.5	11.3	11.2
상해	보험료	2,888	2,467	2,402	2,237	9,995	2,802
	증가율	2.3	-6.7	-9.0	-1.3	-3.6	-3.0
	구성비	12.4	10.5	10.9	10.3	11.0	12.1
특종	보험료	3,089	2,981	2,820	2,881	11,770	3,306
	증가율	2.8	8.9	11.2	9.9	8.0	7.0
	구성비	13.2	12.7	12.8	13.3	13.0	14.3
합계	보험료	23,367	23,517	22,071	21,682	90,637	23,191
	증가율	3.8	9.6	-0.9	-1.3	2.7	-0.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지급률〉

- FY2016 1/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59.5%로 전분기보다 5.8%p 상승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8% 감소한 2조 3,191억 엔을 기록함.
-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9.1% 증가한 1조 3,790억 엔을 기록함.

〈표 14〉 일본 손해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4	FY2015				FY2016
		4/4	1/4	2/4	3/4	4/4	4/4
원수보험료	금액	21,963	23,367	23,517	22,071	21,682	23,191
	증가율 ¹⁾	2.8	3.8	9.6	-0.9	-1.3	-0.8
지급보험금	금액	11,753	10,684	11,129	12,730	11,640	13,790
	증가율	0.7	-12.1	-1.3	10.8	-1.0	29.1
지급률 ²⁾		53.5	45.7	47.3	57.7	53.7	59.5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원수보험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16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7% 감소한 30조 296억 엔으로 집계됨.
- 현금 및 예금, 매입금전채권, 금전신탁, 대출금, 부동산의 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12.5%, 54.2%, 5.2%, 6.6%, 0.4% 감소함.
- 반면, 단기자금, 환매조건부채권의 자산 규모는 전분기보다 각각 493.4%, 15.9% 증가함.
- 유가증권의 경우 전분기대비 4.4% 감소한 22조 815억 엔으로 집계됨.
 - 국채, 지방채와 회사채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0.4%, 4.1%, 0.7% 감소함.
 - 주식, 외화증권, 기타 증권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10.8%, 2.8%, 11.9% 감소함.

〈표 15〉 일본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9,227	-0.7	17,362	88.2	13,729	-20.9	17,034	24.1	14,905	-12.5
단기자금	4,422	38.2	8,627	95.1	6,402	-25.8	407	-93.6	2,415	493.4
환매조건부채권	5,549	219.9	6,325	14.0	3,907	-38.2	1,130	-71.1	1,310	15.9
매입금전채권	3,785	-15.0	2,508	-33.7	3,771	50.3	1,964	-47.9	900	-54.2
금전신탁	1,391	2.8	1,332	-4.2	1,387	4.1	1,994	43.8	1,890	-5.2
유가증권	234,680	-0.4	220,908	-5.9	233,743	5.8	230,969	-1.2	220,815	-4.4
- 국채	61,555	-5.0	57,996	-5.8	57,026	-1.7	58,935	3.3	58,694	-0.4
- 지방채	3,073	-3.8	3,001	-2.3	3,198	6.6	3,432	7.3	3,292	-4.1
- 회사채	23,595	-2.0	24,165	2.4	24,791	2.6	26,174	5.6	25,978	-0.7
- 주식	84,334	2.6	73,958	-12.3	78,245	5.8	66,767	-14.7	59,534	-10.8
- 외화증권	59,564	1.0	59,161	-0.7	67,865	14.7	73,029	7.6	70,998	-2.8
- 기타증권	2,560	10.6	2,627	2.7	2,616	-0.4	2,632	0.6	2,318	-11.9
대출금	18,219	-2.2	15,142	-16.9	15,417	1.8	19,038	23.5	17,784	-6.6
부동산	9,777	-0.6	9,702	-0.8	9,613	-0.9	9,491	-1.3	9,454	-0.4
운용자산	287,050	1.1	281,908	-1.8	287,969	2.1	282,027	-2.1	270,645	-4.0
비운용자산 ²⁾	25,519	-0.3	26,015	1.9	25,507	-2.0	26,472	3.8	29,650	12.0
총자산	312,570	1.0	307,924	-1.5	313,476	1.8	308,500	-1.6	300,296	-2.7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15 하반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84.3% 증가한 4,442억 엔을 나타냄.

■ 자본이익률은 전분기대비 9.4%p 상승한 13.0%를 기록함.

○ 자본은 전분기대비 0.3% 감소한 6조 8,160억 엔을 기록함.

■ 총자산이익률은 전분기대비 2.1%p 상승한 2.9%를 기록함.

○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0.2% 증가한 30조 8,500억 엔을 기록함.

〈표 16〉 일본 손해보험 실적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3	FY2014		FY2015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당기순이익	금액	246	2,632	1,156	1,257	4,442
	증가율 ²⁾	-82.6	38.7	369.9	-52.2	284.3
자본	금액	58,137	65,408	74,277	68,331	68,160
	증가율 ³⁾	-1.2	12.5	13.6	-8.0	-0.3
총자산	금액	289,298	295,344	309,605	307,924	308,500
	증가율 ³⁾	-0.4	2.1	4.8	-0.5	0.2
자본이익률 ⁴⁾		0.8	8.0	3.1	3.7	13.0
총자산이익률 ⁴⁾		0.2	1.8	0.7	0.8	2.9

주: 1) 일본 손해보험회사는 반기별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만을 발표하고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전분기대비 증가율.

4) 연율화 수치.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해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해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²⁶⁾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 2016년 2/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6,83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9.5% 증가함.

○ 인보험 및 손해보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성장률은 하락함.

■ 2016년 2/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5.3% 증가한 2,371억 위안임.

○ 인보험 및 손해보험 증가율이 모두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율은 높아짐.

■ 2016년 2/4분기 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한 930억 위안으로 집계됨.

〈표 17〉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8,425	5,277	5,338	5,242	24,283	11,979	6,834
	증가율 ²⁾	20.4	17.6	20.1	21.9	20.0	42.2	29.5
인보험	금액	6,446	3,238	3,445	3,158	16,288	9,825	4,686
	증가율	22.9	23.4	26.4	29.5	25.0	52.4	44.7
손해보험	금액	1,979	2,039	1,893	2,084	7,995	2,154	2,148
	증가율	12.6	9.3	10.1	12.0	11.0	8.9	5.3
지급보험금	금액	2,311	1,893	2,056	2,414	8,674	2,891	2,371
	증가율	24.3	13.2	20.5	22.0	20.2	25.1	25.3
인보험	금액	1,397	973	999	1,112	4,480	1,815	1,281
	증가율	36.3	22.7	28.4	33.6	30.7	29.9	31.7
손해보험	금액	915	920	1,058	1,302	4,194	1,076	1,090
	증가율	9.7	4.7	13.9	13.6	10.7	17.6	18.4
사업비	금액	699	794	811	1,033	3,337	838	930
	증가율	14.0	21.0	21.0	20.6	19.3	19.9	17.2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26)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국 보험산업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자산운용〉

- 2016년 2/4분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0% 증가한 14조 2,661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4.7% 증가한 12조 5,629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8.4% 감소한 1조 7,031억 위안임.
- 예치금을 제외한 채권,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기타 자산은 모두 전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치금은 2조 3,605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1.0%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19.1%에서 16.5%로 하락함.
 - 채권,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기타 자산은 각각 전분기대비 4.2%, 0.8%, 18.7% 증가한 4조 2,078억 위안, 1조 6,959억 위안, 4조 2,986억 위안을 기록함.
 - － 채권, 기타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9.5%, 18.7%로 전분기에 비해 0.3%p, 5.6%p 상승하였으나 주식 및 주식형 펀드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12.1%에서 11.9%로 하락함.

〈표 18〉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운용자산계	금액	98,941	103,685	103,935	111,795	111,795	119,943	125,629
	증가율 ³⁾	6.0	4.8	0.2	7.6	19.8	7.3	4.7
	구성비	91.0	90.7	89.9	90.5	90.5	86.6	88.1
예치금	금액	26,386	26,791	25,425	24,350	24,350	26,510	23,605
	증가율	4.2	1.5	-5.1	-4.2	-3.8	8.9	-11.0
	구성비	24.3	23.4	22.0	19.7	19.7	19.1	16.5
채권	금액	35,468	35,532	36,197	38,446	38,446	40,392	42,078
	증가율	-0.4	0.2	1.9	6.2	8.0	5.1	4.2
	구성비	32.6	31.3	31.3	31.1	31.1	29.2	29.5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금액	13,056	15,386	13,745	16,969	16,969	16,821	16,959
	증가율	26.4	17.8	-10.7	23.5	64.3	-0.9	0.8
	구성비	12.0	13.5	11.9	13.7	13.7	12.1	11.9
기타 자산 ⁴⁾	금액	24,031	25,976	28,569	32,030	32,030	36,219	42,986
	증가율	8.8	8.1	10.0	12.1	45.1	13.1	18.7
	구성비	22.1	22.7	24.7	25.9	25.9	26.1	30.1
비운용자산계 ⁵⁾	금액	9,762	10,612	11,845	11,802	11,802	18,592	17,031
	증가율	17.9	8.7	11.6	-0.4	42.6	57.5	-8.4
	구성비	9.0	9.3	10.2	9.5	9.5	13.4	11.9
총자산	금액	108,703	114,297	115,780	123,598	123,598	138,535	142,661
	증가율	7.0	5.1	1.3	6.8	21.7	12.1	3.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분기대비.

4) 기타 자산은 부동산, 인프라시설 자산 등이 있음.

5)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이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나. 인보험²⁷⁾

〈수입보험료〉

■ 2016년 2/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4,68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4.7% 증가함.

○ 건강보험²⁸⁾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면서 인보험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6년 2/4분기 생명보험²⁹⁾ 및 상해보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건강보험 증가세가 확대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3.3% 증가한 3,302억 위안,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194억 위안이었음.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세금우대정책³⁰⁾으로 전년동기대비 100.4% 증가한 1,191억 위안을 기록함.

〈표 19〉 인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료	6,446	3,238	3,445	3,158	16,288	9,825	4,686
	증가율 ²⁾	22.9	23.4	26.4	29.5	25.0	52.4	44.7
생명보험	보험료	5,633	2,477	2,685	2,446	13,242	8,459	3,302
	증가율	22.3	19.1	21.2	22.4	21.5	50.2	33.3
건강보험	보험료	652	594	591	574	2,410	1,169	1,191
	증가율	32.5	48.1	60.8	75.6	51.9	79.3	100.4
상해보험	보험료	161	168	169	138	636	197	194
	증가율	11.8	18.3	18.1	21.0	17.1	22.2	15.4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27)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28) 중국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유사하며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음.

29)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음.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통칭되며 투자형 상품은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해당됨.

30) 중국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상업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개인에게 연간 2,400위안 한도에서 소득세 세전 공제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지급보험금〉

■ 2016년 2/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28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1.7%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은 각각 1,031억 위안, 210억 위안, 4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2.5%, 29.7%, 19.8% 증가함.

〈표 20〉 인보험 지급보험금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금	1,397	973	999	1,112	4,480	1,815	1,281
	증가율 ²⁾	36.3	22.7	28.4	33.6	30.7	29.9	31.7
생명보험	보험금	1,195	778	771	822	3,565	1,544	1,031
	증가율	38.5	21.8	27.7	31.9	30.7	29.2	32.5
건강보험	보험금	169	162	186	247	763	227	210
	증가율	27.1	30.6	32.4	42.3	33.6	34.6	29.7
상해보험	보험금	33	34	42	43	152	44	41
	증가율	13.8	13.3	25.1	20.5	18.2	34.1	19.8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지급률〉

■ 2016년 2/4분기 인보험 지급률은 전분기 18.5%에서 27.3%로 상승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률은 각각 31.2%, 17.6%, 21.0%인 것으로 집계됨.

〈표 21〉 인보험 지급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21.7	30.0	29.0	35.2	27.5	18.5	27.3
생명보험		21.2	31.4	28.7	33.6	26.9	18.2	31.2
건강보험		25.9	27.3	31.4	43.0	31.7	19.5	17.6
상해보험		20.5	20.2	25.0	30.9	23.9	22.5	21.0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6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1/4분기와 비교할 때 상승한 데 반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하락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4.4%로 전분기에 비해 0.7%p 증가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전분기 6.3%에서 5.6%로 하락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³¹⁾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2.5%p 증가한 53.7%로 나타났으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Evergrande Life, Bocomm Life인 것으로 조사됨.

〈표 22〉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60.3	57.2	53.6	46.6	55.6	51.2	53.7
		중·소형사 ³⁾	34.3	37.3	39.9	44.9	38.1	42.5	40.7
		소계	94.6	94.4	93.5	91.5	93.8	93.7	94.4
	외국계		5.4	5.6	6.5	8.5	6.2	6.3	5.6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31)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China Life, Ping An Life, Hexie Health Insurance, CPIC Life, New China Life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0%, 12.5%, 9.2%, 6.6%, 5.4%임(2016년 2/4분기 기준).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³²⁾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14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함.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 증가세의 둔화는 자동차상업보험 제도³³⁾ 및 조세정책³⁴⁾ 변화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3〉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료	1,979	2,039	1,893	2,084	7,995	2,154	2,148
	증가율 ²⁾	12.6	9.3	10.1	12.0	11.0	8.9	5.3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지급보험금〉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09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함.

〈표 24〉 손해보험 지급보험금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금	915	920	1,058	1,302	4,194	1,076	1,090
	증가율 ²⁾	9.7	4.7	13.9	13.6	10.7	17.6	18.4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32) 중국은 원수보험료가 아니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발표하고 있음.

33) 중국 정부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자동차상업보험 약관 및 요율 자율화 방안을 전국 18개 지역에서 시행하였으며, 동 방안의 시행으로 1인당 자동차상업보험 보험료가 하락하였음.

34) 중국 정부는 2016년 5월부터 보험산업에 적용되는 조세정책을 영업세에서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였으며, 동 조세정책의 변화로 손해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이 평균적으로 약 1%p 증가함.

〈지급률〉

■ 2016년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50.7%로 전분기에 비해 0.8%p 상승함.

〈표 25〉 손해보험 지급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46.2	45.1	55.9	62.5	52.5	49.9	50.7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6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1/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소폭 상승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2%p 하락한 97.9%로 나타났으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전분기 1.9%에서 2.1%로 상승함.
- 한편,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³⁵⁾의 시장점유율은 62.7%로 전분기에 비해 1.8%p 하락하였으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XA Tianping P&C, Groupama AVIC, AIG인 것으로 조사됨.

〈표 26〉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5.0	64.2	64.3	62.6	64.0	64.5	62.7
		중·소형사 ³⁾	33.1	33.8	33.6	35.2	33.9	33.6	35.2
		소계	98.1	97.9	97.9	97.8	97.9	98.1	97.9
	외국계		1.9	2.1	2.1	2.2	2.1	1.9	2.1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35)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PICC P&C, Ping An P&C, CIPC P&C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4.9%, 17.5%, 10.2%임(2016년 2/4분기 기준).

라. 연금보험³⁶⁾

■ 2016년 2/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21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하였으나, 누적 운용보험료는 4,545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5.1% 증가함.

○ 2016년 2/4분기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5년 2/4분기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 급증의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7〉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수탁보험료 ²⁾	금액	256	248	166	204	874	264	214
	증가율 ²⁾	54.2	75.9	25.3	21.9	44.1	3.2	-13.6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3,479	3,837	3,881	4,169	4,169	4,323	4,545
	증가율 ³⁾	10.1	10.3	1.2	7.4	31.9	3.7	5.1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36)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도입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금보험회사를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중국 내에 설립된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런쇼우, 장장, 타이강 등 5개 회사임.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産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産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투자형 상품인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형 상품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産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 록. 통계표

〈부록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성장률		3.4	2.7	2.4	2.2	2.8	3.1	2.8	3.2
경상수지 ³⁾		20,665	26,451	22,439	27,918	29,108	26,406	24,076	25,795
수출 ⁴⁾		150,821	152,724	134,439	142,259	135,363	136,777	118,002	127,882
수입 ⁴⁾		129,843	127,587	110,222	108,579	104,725	105,021	90,117	94,876
실업률		3.3	3.2	4.1	3.8	3.4	3.1	4.3	3.8
금리	국고채(3년)	2.50	2.17	1.98	1.80	1.72	1.70	1.53	1.42
	회사채(3년)	2.89	2.51	2.26	2.04	1.98	2.07	2.01	1.88
소비자물가지수		109.36	108.90	109.37	109.71	110.10	110.06	110.49	110.65
환율	원/달러	1,025.76	1,086.72	1,100.26	1,097.77	1,167.80	1,157.69	1,201.44	1,163.30
	원/엔화	988.33	949.95	923.39	904.73	955.75	953.07	1,042.81	1,076.07
KOSPI		2,041.86	1,948.13	1,964.87	2,095.29	1,983.39	1,999.03	1,926.92	1979.91
외환보유고		364,407	363,593	362,750	374,749	368,114	367,962	369,840	369,890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3)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 수지를 모두 합한 값임.

4) 상품 수출 및 수입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수입보험료	61,157 (0.8)	61,327 (4.3)	61,482 (-2.3)	246,848 (2.7)	57,044 (-9.3)	53,563 (-12.4)
	초회보험료	15,243 (-14.8)	15,071 (-1.3)	14,238 (-18.4)	62,198 (-6.7)	11,565 (-34.5)	8,542 (-44.0)
	계속보험료	45,914 (7.4)	46,256 (6.3)	47,244 (3.9)	184,650 (6.3)	45,479 (0.5)	45,021 (-1.9)
사망	수입보험료	88,434 (7.7)	90,538 (8.9)	92,349 (8.3)	360,361 (8.6)	96,491 (8.4)	95,863 (8.4)
	초회보험료	4,015 (78.5)	5,346 (105.3)	4,479 (20.5)	20,272 (89.1)	7,470 (16.1)	4,252 (5.9)
	계속보험료	84,418 (5.7)	85,191 (5.8)	87,871 (7.8)	340,089 (5.9)	89,022 (7.8)	91,611 (8.5)
생사 혼합	수입보험료	53,500 (3.6)	51,152 (4.0)	57,187 (16.6)	213,771 (6.6)	66,400 (27.9)	56,050 (4.8)
	초회보험료	10,807 (-14.9)	8,719 (-12.3)	12,015 (34.5)	43,169 (-2.3)	22,310 (91.9)	13,059 (20.8)
	계속보험료	42,693 (9.6)	42,433 (8.2)	45,172 (12.6)	170,602 (9.1)	44,090 (9.4)	42,990 (0.7)
변액 보험	수입보험료	53,539 (4.5)	52,629 (2.0)	49,140 (-5.4)	206,431 (-0.1)	48,231 (-5.7)	48,052 (-10.2)
	초회보험료	3,942 (56.2)	4,168 (47.8)	2,377 (-5.1)	12,831 (22.8)	2,152 (-8.1)	2,624 (-33.5)
	계속보험료	49,597 (1.8)	48,461 (-0.7)	46,763 (-5.4)	193,600 (-1.4)	46,079 (-5.5)	45,428 (-8.4)
개 인 계	수입보험료	256,631 (4.5)	255,646 (5.3)	260,158 (4.4)	1,027,412 (4.9)	268,166 (5.2)	253,528 (-1.2)
	초회보험료	34,008 (-3.8)	33,304 (8.7)	33,109 (1.6)	138,470 (4.9)	43,497 (14.3)	28,477 (-16.3)
	계속보험료	222,623 (5.9)	222,342 (4.8)	227,049 (4.9)	888,942 (4.9)	224,669 (3.6)	225,051 (1.1)
일반 단체	수입보험료	1,906 (-5.7)	1,879 (-6.0)	1,845 (-1.7)	7,735 (-5.1)	2,120 (0.7)	1,902 (-0.2)
	초회보험료	258 (-4.0)	289 (1.5)	255 (19.0)	1,281 (1.2)	552 (15.1)	306 (18.3)
	계속보험료	1,648 (-5.9)	1,590 (-7.3)	1,590 (-4.4)	6,454 (-6.3)	1,568 (-3.5)	1,597 (-3.1)
퇴직 연금	수입보험료	19,988 (15.7)	14,100 (29.9)	86,626 (12.9)	136,990 (15.9)	19,647 (20.7)	27,852 (39.3)
	초회보험료	3,924 (-45.8)	4,317 (-5.1)	28,858 (-14.5)	43,436 (-15.5)	4,400 (-30.6)	5,094 (29.8)
	계속보험료	16,064 (60.1)	9,783 (55.1)	57,768 (34.3)	93,553 (40.0)	15,247 (53.4)	22,758 (41.7)
단 체 계 ³⁾	수입보험료	21,895 (13.5)	15,979 (24.3)	88,471 (12.5)	144,725 (14.5)	21,767 (18.4)	29,755 (35.9)
	초회보험료	4,183 (-44.3)	4,606 (-4.7)	29,112 (-14.3)	44,717 (-15.1)	4,952 (-27.4)	5,400 (29.1)
	계속보험료	17,712 (50.3)	11,373 (41.8)	59,359 (32.9)	100,008 (35.7)	16,815 (45.4)	24,355 (37.5)
합계	수입보험료	278,525 (5.1)	271,624 (6.3)	348,629 (6.4)	1,172,137 (6.0)	289,933 (6.1)	283,283 (1.7)
	초회보험료	38,191 (-10.9)	37,910 (6.9)	62,221 (-6.5)	183,187 (-0.8)	48,449 (8.0)	33,877 (-11.3)
	계속보험료	240,335 (8.2)	233,715 (6.2)	286,408 (9.6)	988,950 (7.4)	241,484 (5.7)	249,406 (3.8)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초회보험료는 1회 납입 보험료를 의미함.

3)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퇴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퇴직연금 의무 가입의 실시로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 작성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1),2)}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34,524	35,582	38,160	142,048	37,057	37,199
	증가율	15.1	14.7	13.7	13.3	9.7	7.7
	지급률	56.5	58.0	62.1	57.5	65.0	69.4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2,363	42,408	44,450	174,183	47,084	45,866
	증가율	2.0	-0.7	2.0	0.6	4.7	8.3
	지급률	47.9	46.8	48.1	48.3	48.8	47.8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29,682	27,718	27,589	117,682	31,838	31,452
	증가율	-1.1	-5.0	-3.2	-2.4	-2.6	6.0
	지급률	55.5	54.2	48.2	55.1	47.9	56.1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37,211	29,418	30,828	130,736	29,813	35,077
	증가율	12.8	-12.4	4.1	4.6	-10.4	-5.7
	지급률	69.5	55.9	62.7	63.3	61.8	73.0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43,780	135,126	141,028	564,649	145,792	149,594
	증가율	6.9	-1.0	4.3	3.8	0.7	4.0
	지급률	56.0	52.9	54.2	55.0	54.4	59.0
일반 단체	지급보험금	2,243	2,046	2,136	8,853	2,317	2,030
	증가율	-8.9	-25.2	-0.5	-10.6	-4.6	-9.5
	지급률	117.7	108.9	115.7	114.5	109.3	106.7
퇴직 연금	지급보험금	18,389	13,083	43,375	96,222	21,620	17,432
	증가율	8.1	10.3	77.0	40.4	1.1	-5.2
	지급률	92.0	92.8	50.1	70.2	110.0	62.6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20,631	15,129	45,511	105,075	23,937	19,462
	증가율	5.9	3.7	70.8	33.9	0.6	-5.7
	지급률	94.2	94.7	51.4	72.6	110.0	65.4
전체	지급보험금	164,412	150,255	186,539	669,724	169,728	169,056
	증가율	6.8	-0.5	15.2	7.6	0.7	2.8
	지급률	59.0	55.3	53.5	57.1	58.5	59.7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 증가율 및 사업비율^{1),2),3),4)}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	사업비	7,623	7,433	7,490	30,454	6,444	6,237
	증가율	-6.1	-1.8	-11.7	-4.0	-18.5	-18.2
	사업비율	12.5	12.1	12.2	12.3	11.3	11.6
사망 보험	사업비	25,608	26,518	28,422	105,786	27,327	27,238
	증가율	-1.3	9.1	3.2	4.6	8.3	6.4
	사업비율	29.0	29.3	30.8	29.4	28.3	28.4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3,977	3,799	3,933	15,811	3,721	3,430
	증가율	-11.7	-13.6	-13.5	-11.3	-9.3	-13.8
	사업비율	7.4	7.4	6.9	7.4	5.6	6.1
개인 보험계	사업비	37,209	37,750	39,844	152,050	37,492	36,905
	증가율	-3.5	4.1	-1.8	0.9	0.7	-0.8
	사업비율	14.5	14.8	15.3	14.8	14.0	14.6
단체 보험계	사업비	958	980	1,060	3,985	295	1,003
	증가율	-24.4	-1.4	-5.9	-10.4	-70.1	4.7
	사업비율	4.4	6.1	1.2	2.8	1.4	3.4
전체	사업비	38,167	38,731	40,904	156,035	37,787	37,908
	증가율	-4.2	4.0	-1.9	0.6	-1.2	-0.7
	사업비율	13.7	14.3	11.7	13.3	13.0	13.4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4)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5〉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¹⁾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료	736	683	893	3,041	720	733
	증가율	-0.4	-2.8	-1.3	-2.1	-1.2	-0.5
	구성비	0.4	0.4	0.4	0.4	0.4	0.4
해상	보험료	1,837	1,820	1,554	7,091	1,506	1,678
	증가율	-4.7	-1.0	-15.1	-3.4	-19.9	-8.7
	구성비	1.0	1.0	0.7	0.9	0.8	0.8
자동차	보험료	37,269	37,355	39,992	149,914	39,382	41,387
	증가율	10.7	9.0	13.7	10.7	11.6	11.1
	구성비	19.4	19.8	17.5	18.7	19.9	20.2
보증	보험료	4,054	3,713	4,150	15,816	3,884	4,017
	증가율	11.0	2.8	2.5	4.4	-0.4	-0.9
	구성비	2.1	2.0	1.8	2.0	2.0	2.0
특종 ²⁾	보험료	13,651	11,536	13,088	51,622	14,102	14,785
	증가율	4.2	0.0	2.3	3.3	5.7	8.3
	구성비	7.1	6.1	5.7	6.4	7.1	7.2
해외 원보험	보험료	1,122	1,557	1,413	5,309	1,318	1,329
	증가율	-22.9	8.0	-9.3	-9.0	8.3	18.5
	구성비	0.6	0.8	0.6	0.7	0.7	0.6
장기 손해	보험료	115,632	116,554	117,116	465,801	117,868	118,954
	증가율	5.6	4.8	4.2	4.9	1.2	2.9
	구성비	60.2	61.7	51.3	58.0	59.6	58.0
개인 연금	보험료	10,015	9,994	10,137	40,211	9,796	9,696
	증가율	-2.3	-2.0	-1.5	-2.1	-2.7	-3.2
	구성비	5.2	5.3	4.4	5.0	5.0	4.7
퇴직 연금	보험료	7,840	5,639	39,918	63,668	9,227	12,571
	증가율	32.7	34.4	-10.1	-0.1	-10.2	60.3
	구성비	0.0	0.0	0.0	0.0	0.0	0.0
계	보험료	192,156	188,851	228,261	802,473	197,804	205,152
	증가율	6.6	5.5	2.2	4.8	2.4	6.8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1),2)}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3.5	57.7	32.3	59.9	51.9
	사업비율	49.7	48.2	50.4	48.6	43.8
	합산비율	93.2	105.9	82.7	108.6	95.7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70.1	94.3	69.8	64.7	35.5
	사업비율	20.0	30.2	45.5	32.8	29.0
	합산비율	90.1	124.5	115.3	97.5	64.5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50.3	54.3	26.9	26.9	47.5
	사업비율	17.0	17.8	21.3	15.2	18.8
	합산비율	67.3	72.0	48.2	42.1	66.3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7.1	70.3	65.5	66.2	70.1
	사업비율	17.3	21.1	20.2	18.1	15.5
	합산비율	84.4	91.4	85.7	84.3	85.6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135.0	235.2	15.5	75.4	85.8
	사업비율	58.2	38.4	69.3	57.8	52.4
	합산비율	193.2	273.6	84.8	133.2	138.2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61.7	76.1	72.7	61.7	66.0
	사업비율	30.6	31.1	30.4	34.2	33.0
	합산비율	92.3	107.3	103.1	95.9	99.0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4.8	87.7	92.2	82.2	82.1
	사업비율	19.8	18.9	19.2	18.3	18.4
	합산비율	104.6	106.6	111.4	100.5	100.5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³⁾	84.5	84.1	84.5	85.2	84.1
	사업비율	18.1	18.3	20.1	19.0	19.0
	합산비율	102.5	102.4	104.6	104.2	103.1
전체	경과손해율	82.3	83.7	82.9	81.6	81.3
	사업비율	18.9	19.1	20.6	19.4	19.2
	합산비율	101.1	102.8	103.4	101.0	100.5

주: 1)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손해보험 효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6년 가을호 (통권 79호)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